

한국비너스회 20년,
그 시간의 역사
HERSTORY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환우회
한국비너스회 20주년 기념

HERSTORY



한국비너스회 20년,
그 시간의 역사

HERSTORY

한국비너스회 20년을 함께 해주신

소중한 당신에게 이 추억을 드립니다

한국비너스회 20년,
그 시간의 역사
HERSTORY



비너스 창단 목표

아름다운 사랑이 풍요롭게 열매 맺는 비너스(VENUS)

‘비너스’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미와 사랑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아픈 세상에 더욱 풍성한 사랑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환우회는 ‘비너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비너스회는 유방암이라는 아픔을 공통분모로 가진 이들이 모여,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사회적 고통을 함께 극복해보고자 만든 환우회입니다. 하지만 비단 서로에게 투병의지를 심어 주고 격려하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풍요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여신의 이름은 걸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너스회는 서로 돕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동시에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0년 2월 13일 창립 때부터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감사, 서기 등의 임원진을 구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왕성하게 활동 중인 20여 개 지회와 산악팀, 요가팀, 편집팀, 건강리듬 포크댄스팀, 난타팀 등 산하단체가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사랑과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노래교실 등을 열고 건강강좌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며 봄, 가을 야외 모임으로 회원 간의 친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여름 수련회를 통해 심신을 단련시켜 건강한 투병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발간 등 유방암 예방을 위한 계몽활동 또한 왕성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창조해가는 기회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난 10년 동안 해 온 것처럼 비너스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가치를 실현해갈 것입니다. 나누며 위로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同行)을 이뤄가겠습니다.

차례

- 06 **축하글** 찬란하고 아름다운 비너스회의 20주년을 맞으며
— 노동영(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 대한암협회 회장)
비너스회 20주년을 맞이하여
— 한원식(서울대학교병원 유방센터장)
- 14 **격려사** 유방암 환우들의 등불인 비너스회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 김연수(서울대학교병원장)
- 24 **1부 봄** 정기총회 / 걷기대회 / 유방센터 / 비너스의 여동생들 / 바자회
- 50 **2부 여름** 수련회 / 쉽터 / 비너스, 세계와 교류
- 66 **3부 가을** 마라톤 / 핑크리본 캠페인 / 대국민건강강좌 / 메이크업유어라이프
- 86 **4부 겨울** 송년회 / 팀장 워크숍
- 102 **5부 그리고 다시 봄**
1장 / 비너스회 회원들의 에세이 ‘나의 비너스’
2장 / 노동영 교수님의 에세이 ‘나의 딸 비너스’
3장 / 전 간호과장님과 수간호사님의 에세이 ‘우리가 바라본 비너스’
4장 / 고문들의 에세이 ‘우리의 비너스’

찬란하고 아름다운 비너스회의 20주년을 맞으며

노동영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 대한암협회 회장

한국비너스회가 2000년 출범해 올해로 벌써 20주년이 되었다. 내 나이 40대 중반에 몇몇 환우분들과 의기투합해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인 한국비너스회를 만들었다. 박경희 회장을 포함한 열혈 회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정정하지만 당시에는 모두 열정과 투지, 이타심이 불타는 그야말로 청춘이었다. 더불어 나도 그들과 함께 힘껏, 정열적으로 수련회, 야유회, 등산, 노래교실 등 그들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즐거움과 어려움을 나누며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함께해 왔다. 이 또한 의사로서 쉽지 않은 행보임을 세월이 흘러가며 더욱 실감하곤 한다.

10년 전인 비너스회 10주년을 맞이하여 내가 쓴 기념사에는 그들을 설명한 네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20주년인 이 기회를 빌려 당시 언급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비너스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우회는 아니지만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23개 조직을 가지며 이를 중심으로 친교 모임을 넘어 본격적인 사회캠페인에 참여해 자원봉사, 환우 활동 등을 최초로 시작한 단체이다. 그들은 매년 서울과 전국에서 벌어지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의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 참여하고, 대한암협회의 핑크조명 행사에서는 거리 행진과 합창 등 핑크리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봉사를 익혀왔다. 장애시설 방문과 위



문 공연 및 기부, 서울대학교병원 합춘후원회에서 매년 열고 있는 합춘바자회에도 기꺼이 물품을 기증하는 것은 물론 판매에도 직접 참여해 소중한 뜻을 함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비너스회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을 불우한 환자들에게 기증하고, 수익금 일부는 합춘후원회에도 기증해오고 있다.

둘째, 동병상련의 아픔을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희망과 극복의 의지를 이끌어내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계기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들에게서 이러한 말들을 드물지 않게 듣는다.

“선생님, 유방암에 걸려 더 잘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에 걸리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러한 아픈, 힘든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살아갔을 것이기에 나온 이야기이다. 병이 주는 숙제를 통해 앞으로는 아픔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당당한 자신만의 삶을 직접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가족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강인한 공주님으로, 자비로운 왕비님으로 대접받으며 가족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비너스회 회원들은,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 이제 비너스회는 한 가족처럼, 더욱이 지부의 구성원들은 더 끈끈하게 유대를 맺어 친자매보다도 자주 만나 따뜻한 친분을 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곤 한다.

몇 해 전에는 수술 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과 집을 오가기에는 먼 지방분들이 잠시나마 머물 '쉼터'를 마련했는데 이제 그곳은 화목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고통을 잠시나마 쉬이 잊어버리고 비너스회 회원들과 자매의 연을 맺는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픔으로 만났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 또 다른 인생의 반려자가 탄생한 것이다.

셋째, 비너스회는 항상 창조적인 활동을 궁리하고 그 목표를 이루고 개척하곤 하였다. 산악회는 이제 남한의 거봉인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의 정상을 밟고 백두산의 북파서파 등도 완주하였다. 몇몇 회원들과 다녀온 히말라야 등반기는 '산'이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것도 기억하고 있다.

노래교실은 탄생한 지 3년이 지나 이제는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곳을 넘어 자타공인 치유의 한 과정으로서 무척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밖에도 요가, 건강리듬포크 댄스, 난타, 비너스 소식지 발간을 맡는 편집팀 등등 다양하고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개인의 자기계발은 물론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 더 나아가 치유 활동을 겸하고 있다.

넷째, 비너스회는 이제 세계 속의 비너스다. 창단 후 박경희, 이병림 회장으로 이어지며 그들의 유창한 일본어로 일본 환우회인 '아케보노'와 교류하며 아케보노의 회장인 왓또상을 초청했다. 또한 대만, 상해의 환우팀과도 서로 왕래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준희 회장은 우리 비너스회가 환우회의 모델로서 귀감이 되어 시카고의 유방암 환우들이 시카고 비너스회를 결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더 나아가 아시아암환우회를 만드는 데도 초석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그들과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지기 위해 작년에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였다. 게다가 국제유방암학술대회인 GBCC 환우 세션에 참가하여 외국의 유방암 환우 활동들을 직접 보고 듣고, 우리의 활동 또한 발표하는 등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2003년에 오픈한 한국비너스회 홈페이지의 내 개인 Q&A 코너는 환자들의 질의응답 건수가 2만 5천 회를 넘으며, 전 세계 교포들도 제법 많은 질문으로 비너스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등 국내외 많은 환우가 우리 비너스회의 홈페이지를 애용하고 있다.

한국비너스회 홈페이지의 Q&A 코너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가까워진 지금은 질의응답 수가 5만 개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5만 개의 질문과 답이 오고 간 지금, 20년을 보낸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여왔을까?

생각해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세월의 무상함도 느낀다. 나의 개인적인 보람과 더불어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기적과 같은 발전과 함께,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기술을 만들어 내어 크게 도약한 모습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 전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활동들이 유지되고 있다지만, 그 사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디지털화되어 인간 내면과 따뜻한 대화보다는 인터넷이나 무선을 통한 기계적 소통이 대세가 되어버렸고 모르는 것, 어려운 것들이 생기면 그 궁금증들은 SNS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되어 인간의 소통 자체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버렸다. 자연히 비너스회 같은 아날로그 모임은 위축되고 회원의 수도 꾸준히 줄어들어 전국의 지부들도 약해지고, 심지어는 사라지는 경우도 생겼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는 회원들은 나와 같은 세월을 보낸 오래된 동지분들이 주이고, 신규 회원 수는 아주 적은 실정이다. 자연히 비너스를 이끌겠다는 회장님을 모시기 힘들어졌다. 이는 비단 우리 비너스회만의 문제가 아닌 국내외 모든 모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현상이다. 그나마 내가 한국비너스회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Q&A는 비너스회 회원 외에도 접속이 활발한 편이지만 이 통로는 대표적인 디지털 소통인 셈이다.

비너스회도 이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시금 모양을 바꾸어야 할 때인 것 같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모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리더인가 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리더가 되는 방법이 되었다. 이제 20살이 된 비너스회에서 모두가 그 답을 찾길 바라며,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찾아보려 한다.

아쉽게도 우리와 길을 달리한 어여쁜 회원들도 몇몇 추억처럼 떠오른다. 누구보다도 비너스회를 사랑하고, 그의 투병기도 소개하여 다른 환우들에게 용기를 주어온 분들도 있다. 이

따금 아련히 그들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만 하지만, 그들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더욱 의미가 깊고 진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도 틀림없이 20주년을 맞이한 우리를 내려다보며 우리의 20주년을 축하해주고 꽃과 같은 미소를 보낼 것이다.

지난 20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환우들의 삶은 오히려 유방암을 통해 탄생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이 다가온다면, 또 맞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나눠 가진 힘으로 당당히 이겨내어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부활하는 우리가, 비너스회가 되길 바란다.

비너스회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원식 /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센터장



먼저 서울대학교병원의 유방센터장으로서 우리 자랑스러운 비너스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기쁘고 크게 축하드립니다.

2004년에 처음 문을 연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센터는 비너스회와 늘 그 숨결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유방센터를 홍보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수술 횟수, 첨단 의료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 높은 완치율들을 내세우지만 빠지지 않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비너스회입니다. 그만큼 우리 비너스회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고 긍정적이며 상징적으로 우리 병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너스회가 벌써 20주년을 맞이하였다고 하니 새삼스레 예전 생각이 많이 나곤 합니다. 2002년, 당시 저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 노동영 교수님 밑에서 펠로우를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처음 비너스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너스회 회장님과 극성(?) 회원님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비너스회와 더불어 봄이면 반월에 있는 노동영 교수님의 농장으로 소풍을 떠났고, 여름이면 전국의 명승지로 수련회를 다녔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수련회를 떠나는

아침이면 의과대학 건물 앞에 비너스회 버스가 줄지어 서 있곤 했는데 우리 회원님들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선뜻 그 버스에 오르기 겁났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비너스회는 스무 살의 나이답게 무척이나 차분하고 성숙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비너스회는 회원들의 열정과 요청이 더해져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시작된 유방암 환우회입니다. 무엇보다 환우들은 내가 겪은 힘든 일들은 다른 환우분들은 겪게 하지 않겠다는 선의(善意), 아픔도 함께하면 반이 된다는 지혜(智慧)를 실천하는 것이 그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작으로 인해 지금의 비너스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끈끈한 응집력으로 뭉친 환우회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원분들 한분 한분 모두가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지금의 비너스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뜨거운 열정 뒤에는 비너스회의 정신적인 교주님, 매일 새벽마다 한국비너스회 홈페이지 Q&A에 질문을 올린 환우들의 글에 답을 다시는 노동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세상은 많이도 변했습니다. 요즘 사회는 각자도생하는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남과 함께 하고 나누는 것보다 개인의 사생활이 더 중시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비너스회에도 변화를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비너스회는 여전히 많은 환우에게 크고 따뜻한 힘을 전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정보가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나의 아픔을 먼저 경험한 선배 환우, 나의 아픔을 스스로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동료의 만남보다 영민하다, 따뜻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20년이라는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비너스회의 30주년, 그리고 40주년의 모습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간다 하더라도 다른

환우들을 위한 아무런 대가 없는 자원봉사와 정보공유,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회원들 간의 친목,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권리 향상에 앞서는 마음과 영향력은 비너스회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유방센터는 유방암 예방과 치료의 글로벌 리더가 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너스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환우회가 함께 협심하여 만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따뜻한 유방센터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너스회 20주년을 축하드리며, 모든 비너스회 회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격려사

유방암 환우들의 등불인 비너스회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김연수 /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 모임인 비너스회가 창립된 지 어느새 스무 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 20살이 되면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성인으로서의 영향력과 권리를 인정받듯, 비너스회 역시 지난 20년간 환우들의 아픈 상처와 마음을 어루만지며 국내 의료계의 자발적이고 대표적인 환우회 모임으로서 성장했습니다.

핑크리본 마라톤대회, 건강캠프, 히말라야 등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비너스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영 교수님의 헌신과 사랑, 치료에 비너스회원들의 따스한 마음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방암환우는 암이라는 암담한 벽에 부딪히지만 같은 아픔을 가진 모임 안에서 서로에게 투병의지를 심어주고 격려하며 결국에는 이겨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환우들은 비너스회 안에서 경험한 건강한 삶의 방식과 치유와 희망을 다른 아픈 이들에게 전하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비너스회의 이야기는 오늘도, 또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온도를 간직한 채, 힘들고 외로운 환우들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손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비너스회가 지나온 20년의 값진 시간과 같이, 앞으로도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따뜻한 온기가 깃든 비너스회로 사랑받고 번영하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비너스회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너스 연혁

2001년

- 2월 제1회 정기모임(간호대 강당) | 소식지(창간호)
- 5월 봄 야유회(반월농장)
- 6월 제2회 정기모임
- 8월 소식지(제2호)
- 9월 제3회 정기모임(간호대 강당)
- 10월 가을 야유회(용문사)
- 12월 소식지(제3호) | 비너스 송년회(가든뷰)

2002년

- 1월 제1회 정기모임
- 3월 제2회 정기모임 | 소식지
- 5월 봄 야유회(반월농장)
- 6월 팀별 모임 결성(팀장 선출)
- 8월 여름 수련회(안성너리글 수련장)
- 10월 가을 정기모임 | 일본 핑크리본 참석 | 남산 핑크리본 참가
- 11월 핑크리본 마라톤
- 12월 소식지 | 비너스 송년회(가든뷰)

2003년

- 2월 정기총회
- 3월 부산팀 결성
- 4월 비너스회 홈페이지 개설 | 노동영 박사 『유방암 예방 식이요법』 출판 기념 | 소식지
- 5월 봄 야유회(태안반도 청포대 해수욕장)
- 6월 비너스회 합창단 창단
- 8월 여름 수련회(여주 샷갓 봉 온천)
- 10월 2030팀 결성 | 핑크리본 마라톤(상암 월드컵 경기장) | 핑크리본 행사, 비너스 합창단 공연(남산타워)
- 11월 가을 정기모임 | 소식지 | 해외(발리) 여행
- 12월 비너스 송년회(가든뷰)

2004년

- 1월 비너스 산악회 발대식
- 2월 정기총회
- 4월 봄 야유회(김포 로그밸리)
- 5월 요가팀 창단
- 6월 소식지
- 8월 여름 수련회(강릉 보현마을)
- 10월 핑크리본 마라톤 | 핑크리본 행사(연합합창단 공연)
- 11월 홍보강사 교육 참가
- 12월 비너스 송년회(함춘회관 강당)

2005년

1월	제주팀, 호남팀 결성
2월	정기총회(함춘회관 강당)
3월	유방센터 개소 1주년 기념
4월	소식지 함춘바자회 핑크리본 마라톤(부산)
5월	핑크리본 마라톤(광주)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비너스회 창단식 참가 봄 आय�회(반월농장)
6월	핑크리본 마라톤(대전)
7월	대구팀 결성 홍보강사 교육 참가
8월	여름 수련회(부산 해운대) 노동영 박사 『유방암을 이기고 생명을 지키는 밥상』 출판
9월	울산팀 결성 원자력병원 유방암 환우회 '새빛회' 창단식 참가 핑크리본 마라톤(대구)
10월	제1회 불우이웃 돕기 일일차집 핑크리본 캠페인(시청)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한국유방건강재단으로부터 비너스회 특별상 수상
11월	수첩제작(3차) 소식지
12월	제주도 여행(한라산 등반) 노동영 박사 『유방암』 출판기념 및 비너스 송년의 밤

2006년

1월	유방센터 확장 기념식
2월	정기총회
3월	유방센터 2주년 개소식(비너스실 개설) 비너스 건강 노래교실 창단 울산대학교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유방암 캠페인 부채춤 공연(하얏트그랜드호텔) 자원봉사팀 결성
4월	노래교실 핑크리본 마라톤(부산) 함춘바자회
5월	봄 आय�회(반월농장) 핑크리본 마라톤(광주) 소식지
6월	핑크리본 마라톤(대전) <생로병사> 방송 출연(비너스 부산팀의 등산, 요가 등)
7월	노래교실(5~12월)
8월	쉼터 개소식 여름 수련회(광주)
9월	핑크 마라톤(대구)
11월	일일차집 해외 여행(베트남) 청주팀 결성
12월	홈페이지 개편 송년회(한강 유람선) 소식지

2007년

2월	정기총회
3월	일본 후쿠오카시티 걷기 대회 참석
4월	핑크리본 마라톤(부산) 함춘바자회
5월	봄 आय�회 소식지 핑크리본 마라톤(광주)
6월	핑크리본 마라톤(대전)
9월	여름 수련회(무주) 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핑크리본 마라톤(대구) 희망애락 콘서트
10월	세계 유방암 학술대회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해외 여행(중국 장가계 원가계)
11월	일일차집 명지병원 환우회 창단식 참석 대만 세계 중화인 유방암학술대회 참석
12월	송년회 소식지

2008년

- 1월 일본 후쿠오카 걷기 대회 참석
- 3월 정기총회
- 4월 핑크리본 마라톤(부산) | 함춘바자회
- 5월 핑크리본 마라톤(광주) | 봄 आय회
- 6월 핑크리본 마라톤(대전) | 대전 유방암 환우 양재천 걷기 대회
- 9월 일일차집 | 씬터 개소 2주년 기념식 | 핑크리본 마라톤(대구) | 희망애락 콘서트
- 10월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 지리산 등반 | 여름 수련회(휘닉스 파크)
- 12월 송년회

2009년

- 1월 건강 노래교실(1~12월)
- 2월 정기총회
- 3월 암예방의 날 | 유방센터 5주년 개소식
- 4월 핑크리본 마라톤(부산) | 함춘바자회
- 5월 핑크리본 마라톤(대전) | आय회(반월농장) | 난타팀 창단식
- 6월 핑크리본 마라톤(광주)
- 7월 서울대학병원 사회사업실과 비너스 자원봉사 협약식 | 건강리듬 포크댄스 창단
- 8월 핑크여우 음악회
- 9월 핑크리본 마라톤(대구) | 여름 수련회(휘닉스 파크) | 대국민건강강좌
- 10월 일일차집 | 시카고 비즈니스와 자매결연 | 세계 유방암 학술대회(GBCC) | 핑크리본 점등 행사(청계천)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 11월 암환자 행복 가꾸기 | 메이크업유어라이프(암환자를 위한 외모관리 프로그램)
한라산 등반 | 팀장 워크숍(삼천포)
- 12월 송년회

2010년

- 1월 건강 노래교실(1~11)
- 2월 정기총회 및 10주년 기념식(세종홀) | 유방센터 6주년 개소식
- 3월 암 예방의 날(양재동 교육 문화회관) |
- 4월 핑크리본 마라톤(부산) | 함춘바자회
- 5월 핑크리본 마라톤(광주)
- 6월 핑크리본 마라톤(대전) | आय회(반월 농장) | 백두산 등반 | 한유회 양재천 걷기 대회
- 9월 핑크리본 마라톤(대구) | 수련회(경주, 대구) | 씬터 개소 4주년 기념식
- 10월 일일차집 | 제1회 사랑해 사랑해 콘서트 | LA Shine과 자매결연 | 핑크리본 점등 행사(청계천) |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 11월 대국민건강강좌 | 팀장 워크숍(지리산 둘레길) | 메이크 유어라이프
- 12월 비너스회 10주년 기념 송년회 | 10주년 기념 화보집 발간

2011년

- 1월 건강 노래교실(1~9월, 11월)
- 2월 정기총회
- 3월 암예방의 날 | 비너스회가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비너스회로 등록
- 4월 함 바자회
- 6월 여름 수련회(단양)
- 7월 한국비너스회와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의 파트너십 체결 | 환우전문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개시
- 10월 바자회 | 세계 유방암 학술대회 | 핑크리본 점등 행사 |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팀장 워크숍(황성 숲체험) | 대국민건강강좌
- 11월 송년회

2012년

- 1월 건강 노래교실(1~5월, 7~10월)
- 2월 정기총회 | 팀장 워크숍(황성)
- 3월 암예방의 날 | JW정원성형외과와의 협약식
- 4월 핑크리본 마라톤(부산)
- 5월 함춘바자회 | 핑크리본 마라톤(대전)
- 6월 여름 수련회(고창) | 핑크리본 마라톤(광주)
- 9월 핑크리본 마라톤(대구)
- 10월 일본 아케보노회와의 교류 |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 핑크리본 점등 행사 | 대국민건강강좌
- 11월 바자회 | 한국비너스회와 GE헬스케어와 함께하는 자선 모금 캠페인
- 12월 송년회 | 함춘후원회에 바자회 기금 전달

2013년

- 1월 건강 노래교실(1~6월)
- 2월 팀장 워크숍(동해안 일대)
- 3월 정기 총회 | 암예방의 날 행사
- 4월 핑크리본 마라톤(부산)
- 5월 함춘바자회 | 핑크리본 마라톤(대전)
- 6월 여름 수련회(안면도) | 핑크리본 마라톤(광주)
- 8월 합창단 창단
- 9월 핑크리본 마라톤(대구)
- 10월 핑크리본 합창제 | 대국민건강강좌 | 핑크리본 점등 행사 | GBCC |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 바자회 |
일본 아케보노회와의 교류
- 11월 산행팀 해외 산행(부루와이와 코타키나발루)
- 12월 송년회

2014년

1월	팀장회의(1월, 3월, 7월, 9월, 11월)
3월	정기 총회 암예방의 날 행사 소식지 발행
5월	함춘바자회 합창단 암정보교육센터 공연
6월	여름 수련회(공주, 부여권)
8월	합창단 힐링여행
9월	핑크리본 마라톤(대구) 합창단 암정보교육센터 공연
10월	합창단 핑크리본 합창제 대국민건강강좌 유방암 의식함양 캠페인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바자회
11월	산행팀 힐링여행
12월	송년회 팀장 워크숍

2015년

1월	팀장회의(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3월	정기총회
4월	핑크리본 마라톤(부산) 함춘바자회
5월	합창단 암정보교육센터 참가 핑크리본 마라톤(대전)
6월	여름 수련회(강원도 일대)
9월	핑크리본 마라톤(대구) 합창단 암정보교육센터 참가
10월	합창단 핑크리본 합창제 대국민건강강좌 유방암 의식함양 캠페인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바자회 홈플러스 걷기대회 참가 강남, 강북 산행팀 연합 산행
12월	송년회 팀장 워크숍(강화도 석모도)

2016년

1월	팀장회의(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3월	정기총회
4월	핑크리본 마라톤(부산)
5월	합창단 암병원개원 5주년행사 핑크리본 마라톤(대전)
6월	여름 수련회(전남 담양) 핑크리본 마라톤(광주)
8월	쉼터 이전
9월	핑크리본 마라톤(대구) 합창단 암정보교육센터 참가
10월	합창단 핑크리본 참여 대국민건강강좌 유방암 의식함양 캠페인 투게더 콘서트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메이크업유아라이프
12월	송년회 함춘후원회 기부금 전달식 팀장 워크숍(강화도 석모도) 쉼터에 트리 후원

2017년

- 1월 팀장회의(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 3월 정기총회
- 4월 핑크리본 마라톤(부산)
- 5월 핑크리본 마라톤(대전) | 합창단 암병원개원 6주년행사 특별출연
- 6월 핑크리본 마라톤(광주) | 여름 수련회(전남 보성)
- 9월 핑크리본 마라톤(대구) | 합창단 암정보교육센터 공연
- 10월 대국민건강강좌 | 유방암 의식함양 캠페인(2017서울로*핑크로*미래로) | 핑크리본 마라톤(서울) |
메이크업유어라이프, 유방암 속옷과 실리콘 패드 지원(비비안과 대한암협회) | 바자회
- 11월 팀장 워크숍
- 12월 송년회 | 함춘후원회 기부금 전달식

2018년

- 1월 팀장회의(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 2월 정기총회 | 소식지 발행 | 홈페이지 개편
- 3월 핑크리본(부산)
- 4월 핑크리본(대전)
- 5월 수련회(경주) | 핑크리본(광주) | 합창단 유방센터 공연
- 6월 합창단 암정보교육센터 공연
- 9월 핑크리본(대구)
- 10월 합창단 핑크 페스티벌 참가 | 대국민건강강좌 | 유방암의식함양 캠페인 | 핑크리본(서울) |
바자회 | 합창단 암정보교육센터 공연 | 메이크업유어라이프
- 12월 송년회 | 팀장 워크숍 | 합창단 유방센터 공연

2019년

- 2월 정기총회
- 3월 핑크리본(부산)
- 4월 핑크리본(대전)
- 5월 걷기대회(남산둘레길)
- 6월 핑크리본(광주)
- 7월 심터 매매
- 9월 핑크리본(대구) | 팀장회의(9월, 11월)
- 10월 핑크리본(서울) | 메이크업유어라이프 | 국민건강강좌 | 핑크리본 점등행사(코엑스) | 바자회
- 11월 송년회
- 12월 함춘회에 기부 | 팀장 워크숍

2020년

- 1월 팀장회의(1월, 5월)
- 2월 20주년 행사 준비
- 6월 비너스희 20주년 기념 행사
- 10월 대국민건강강좌 | 핑크리본(서울) | 바자회 | 핑크 캠페인 | 메이크업유어라이프

비너스 회가

경쾌하게

강순미 작곡
이준희 작사



비너스 — 밝은 미소 내일의 용기와 희망



우리의 그 — 소망 이루어 지 리 어제의 아픔 과 슬픔 떨 — 리



사 라 지 고 행복 이여 오라 오라 — 새 롭게 찾아온 삶 감사 하며 다 — 함께



비너스 — 빛 — 내 리 — 비너스 — 소 — 중한 우 — 리 의



만 — 남 아 름답 고 찬 — 란한 그 대 비너스 —

비너스회 조직도

(가나다순)





1부 봄

언제나 설레는 계절답게
이름도 아름답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새로이 태어나는 계절답게 우리도 봄에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얼었던 몸을 녹이고 앞으로의 계절들과 잘 지낼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
우리는 봄에 모여 함께 달립니다.

풍경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소풍도 떠납니다.

바자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득템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 함박웃음도 지어봅니다.

이런 미소를 선물한, 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당신의 봄은 언제이고, 어떤 봄과 지내고 있나요?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봄에 열리는 비너스의 모임입니다.
겨우내 춥고 찌뿌둥한 날씨를 살짝 지나고 난 새해의 초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만든 비너스회를 위해 하나둘 모입니다.
그동안 못 보던 비너스와 함지막한 수다꽃을 피우기도 하고,
병아리 비너스를 반기며 따뜻한 봄을 함께 시작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비너스 사람들이 모인 정기총회로 초대합니다.





정기총회에서 교수님들의 축사와 건강강좌

정기총회를 함께하며



매년 총회 때마다 많은 임원진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잠시나마 전국에 우리 회원님들의 밝고 환한 모습들을 보며...

일일이 얼굴은 다 익히지 못하고 돌아 오지만 회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 무척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함 전합니다.

아직 바람은 찬 듯하지만 봄이 온 듯 거리엔 매화꽃도 목련꽃도 피었고, 산에 갔더니 생강 나무꽃도 노랗게 활짝 피었네요. 꽃소식이 전해지는 3월, 비너스 우리 회원님들도 꽃처럼 예쁘고 활짝 마음을 열어 나날이 즐겁고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사는 곳의 봄소식도 종종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웃는 날, 행복하세요.

— 이경숙 회원



정기총회가 반가운 이유,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



정기총회의 웃음은 우리가 책임진다, 비너스 장기자랑





회장 인준과 발표, 그리고 임원팀장 소개 시간.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전기대회

비너스의 여인들은 수줍은 목련과 발랄한 노란 개나리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구경과 더불어 소풍을 앞둔 소녀처럼 설레기 시작합니다.
바로 봄마다 비너스회의 봄소풍인 전기대회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만큼은 화장대 구석에
넣어둔 발랄한 꽃분홍 색 립스틱도 발라보고 아껴둔 봄나들이 옷도 꺼내 소풍을 준비한답니다. 이
날만큼은 의사선생님들과 우리들은 열여섯 소년 소녀들로 돌아가 봄이 자연에 준비해둔
알록달록 꽃 양탄자들 사이에서 마음껏 즐깁니다.





남산둘레길 걷기대회는 간식타임부터!





꽃피는 남산길, 그 아름다운 정기를 듬뿍듬뿍



걷기대회를 함께하며



비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하늘은 맑게 개이고 비너스 여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하늘을 메아리쳤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우리 환자 맞나요?

아! 이것이 살아 있다는 증거구나! 동질감이 느껴지는 동지애구나! 비너스회가 있어 내가 이런 감동을 느끼는구나!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박사님, 선생님들, 회장님, 임원진들, 팀장님들, 비너스 회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 한혜진 회원





꽃구경에 빠질 수 없는 맛난 식사!



유방센터

유방센터는 유방암 환자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유방암과 관련된 진료팀이 협진해 하루만에 검진과 결과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방사선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등 유방질환 관련 진료과가 한곳에 모여 외래진료는 물론 검사, 항암제 치료, 유전성 유방암 상담(유전자 클리닉), 양성종양의 경우 수술도 가능합니다. 유방암 상담센터 사무실에서는 환자분들이 정보를 찾아 헤매는 고충도 덜어드립니다.





개소식에서 병원장님의 세미나

유방센터 개소식을 함께하며



지난 3월, 유방센터 개소 기념 행사가 유방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병원장님과 많은 박사님께서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노동영 박사님의 진행으로 행사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로 샴페인을 들고 최국진 박사님의 선창으로 축배의 잔을 들었는데 “아~ 의사와 환자가 하나구나!” 하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새로 선출된 회장님을 비롯하여 새 임원진과 몇 분의 팀장님들 그리고 고문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준 가운데 치러진 우리들만의 작은 잔치였습니다. 얼음조각이 분위기를 띄우고 여러 곳에서 보내온 화환이 회사함을 더하는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한 회원님들 생각에 못내 마음 한구석이 서운한 하루였습니다.

— 비너스 회원



유방센터 개소식을 빛내고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비너스의 여동생들

건강 노래교실, 산행팀, 요가팀, 난타팀, 합창단, 편집팀

비너스회는 유방암이라는 아픔으로 뭉쳤지만 예쁜 여동생들이 많지요.
건강을 지키려면 등산을 빼놓을 수 없죠? 산행팀에서 우리나라 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요,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난타로 날려버리고, 명상을 위한 요가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 문학소녀 한다면 <비너스회>
잡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소극적이고 지방이라 모임이 힘들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 각 지역에서도 모임이 있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봄을 즐겨보아요.

건강노래교실





건강 노래교실의 즐거운 한때

건강 노래교실을 함께하며



노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을 업 시키는지, 축복받은 비너스 공주들이여, 왕족끼리 모여 잔치 벌리셈, 그까이꺼! 봄 노래, 사랑노래, 희망노래 같이 불러요.

비너스 건강 노래교실 핫팅.

— 정진향 (비너스 노래교실 감사)

산행팀



산행을 함께하며



비너스 회원 여러분! 산행을 하면서 자연과 벗하면 부러울 것이 없어지고 힘들었던 투병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정상에 올라 마음껏 가슴을 펴고 소리도 쳐보고 담소도 나누면서 시름을 버리세요. 비너스 회원님들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시간을 내시어 우리 함께 산행해 보세요.

— 박춘숙(비너스 산악회 팀장)



도봉산 산행에 오르며 시산제를
올리는 산행팀



요가를 함께하며



요가를 하면서 저 자신이 일상생활에 행복감과 충실감을 느낀다는 것과, 같이하는 분들이 다 같이 좋아하시고 건강해져서 웃으시는 모습에 작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비너스 여러분, 건강은 우리의 삶 그 자체요 행복입니다. 요가를 통해 이 행복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안병옥(비너스 요가 팀장)

몸도 마음도 힐링, 우리는 요가팀

난타팀



난타로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합창단



암병원에서의 공연, 모두 건강하길 노래로 기원합니다.





합창단을 함께하며



한국비너스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합창단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노래 부르면서 건강과 자신감과 행복함을 가지세요. 앞으로는 더더욱 열심히 하여 더 많은 공연이 있길 살짝 기대해 봅니다. 송년회 때의 합창은 관중(?)들로부터 앙콜도 받았답니다.

— 이승연(비너스회 합창단원)



편집팀



편집팀과 함께하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책을 만드는 작업이 얼마만큼 어려운지도 모르고 용기 하나만 믿고 도전해 5권의 책을 만들고 이번에 비너스 10주년 기념책자까지 맡게 되어서 많은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더없이 기쁘고 보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소식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10년 후 오늘 이 소식지를 접한 모든 분이 20주년 기념식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고경자 회원



이야기와 순간순간들을 한 장에 모으는 편집팀.

바자회

바자회는 일년에 두 번, 봄에 서울대병원에서 주최하는 함춘 바자회와 가을에 비너스회에서 불우환우돕기 바자회가 열립니다.

좋은 의도로 열리는 바자회이지만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해 바자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바자회가 열리면 점심을 후다닥 마치고 바자회 쇼핑을 즐기는 선생님, 간호사분들이 많답니다. 비너스회 회원들은 물론 이날을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이런 행복한 바자회, 지나칠 수 없겠죠?





바자회를 함께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불우환우돕기 바자회가 펼쳐졌습니다. 바자회 참석을 위해 서울에서 하루를 더 머문 저는 포근하고 따스한 감동을 받고 밤차를 타고 나의 안식처로 돌아왔다. 비너스, 생각할 수록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나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짐을 느낍니다.

깔끔하게 진행되는 바자회의 여러 모습을 보았다. 작품전시, 재능기부와 함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한층 돋보였고 조용히 뒤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기증해주신 비너스님들. 이런 게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는 강제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솔선해서 앞선 임원들 그리고 함께 따라주는 팀장님들, 기동이 되어주신 감사님들을 통해 깨달았다.

보기 좋고 흐뭇함이 흐르는 사랑스런 모임의 바자회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감동이 이 밤을 설레게 한다. 산들바람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에도 사랑과 따뜻한 훈훈한 바람이 스쳐 가길 바라며, 비너스회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비너스회의 한마당잔치인 바자회 구경오세요.

— 한희숙 회원



함춘바자회의 비너스바자회, 다들 구경오세요!





2부

여름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여름
우리의 희망들도 태양을 향해 알알이 영글어갑니다

언제 햇볕이 따뜻해졌나 싶게 영근 태양은 우리의 얼굴에도 홍조를 선물합니다.
사춘기 소녀처럼 볼 빨간 우리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산으로 바다로 이끍니다.
때로는 힘겨워하는 비너스를 위해 우리가 따뜻하게 데운 등지인 쉼터도
기꺼이 선물합니다.

바다 건너 힘겨워하는 비너스가 있다 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지요.
우리가 더욱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면 되니까요.
당신을 비너스의 뜨겁고 다정한 여름으로 초대합니다.

수련회

우아한 목련과 발랄한 개나리꽃 피는 봄이 지나 작열하는 태양을 담은
해바라기의 계절 여름에는 비너스회 회원들이 모여 시원한 여행을 떠납니다.
그동안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산과 바다, 계곡에서 풀어내려 합니다.
자연의 에너지를 담뿍 담은 우리의 여름, 시원한 비너스의 여름으로 초대합니다.





수련회를 함께하며



수련회를 위한 버스가 병원 후문에서 기다립니다. 그동안 바빴기에 버스에 타자마자 졸음이 오는데 이런, 설 틈이 없습니다. 김밥과 떡을 먹으랍니다. 원래 아침 안 먹는데 굶도 읍니다. 야쿠르트도 읍니다.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동 간에 노래 일발 장전!!~”

전국노래 자랑은 끝이 날 줄 모릅니다.

“무시로~ 무시로~ 외우올 때 그때 울어요~”

오는 동안 못 했던 이야기는 여행지에 도착해 모두 한 보따리씩 풀어놓습니다. 조용히 말해서는 옆 사람과도 대화가 안 되더군요. 한 잔씩 돌아가는 술잔과 계속되는 식사 속에 배가 터져 나갑니다. 이어지는 불꽃쇼와 캠프파이어 그리고 시낭송, 비너스가 합창, 원으로 돌며 서로 인사하기 등, 친목의 시간이 이어져 갑니다.

‘아,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착각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체력의 소유자 비너스는 멈추질 않습니다. 레크레이션룸에서 다시금 열리는 파티, 파티. 우와~ 놀랍습니다.

파티가 정리되자 이제 개별적 친목의 시간을 가집니다. 자시가 지나 축시가 무르익어도 노래와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참석하지 못하셨던 회원님들도 사진을 보시면 눈앞에 그때의 장면들이 그려지리라 생각합니다. 매우 즐거운 수련회였고 다음에도 다 같이 가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 김석원 전 서울대병원 전임의



2015년, 공주 한옥마을로 떠난 수련회
교수님도 피해갈 수 없지!



2013년, 신비한 섬 안면도로 떠나는 수련회



2015년, 공주 한옥마을로 떠난 수련회
하하호호 즐거운 레크레이션.





2010년, 경주 대명리조트로 떠난 수련회

2010년, 경주 수련회 후 대구 마라톤 참가



강원도 & 북한산



북한산으로 떠난 소풍길, 우리 핑크핑크하죠?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즐거운 물놀이,
기억하시죠?

백두산



우리나라 북쪽의 끝, 백두산에 오르다!





백두산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히말라야 원정대!

쉼터

한국비너스회 쉼터는 유방암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신
‘지방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집’으로 한국비너스회에 의해
2006년 9월에 개소되었고 2019년 7월까지 관리와 운영되었습니다.

쉼터는 단순히 병원과 가까운 숙소의 개념보다는 같은 아픔을 함께하는
환우들이 이곳에서 서로 마음을 나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가는 말 그대로 쉼터입니다.
나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는 나의 자매들과 함께 그곳에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해나갔습니다.





쉼터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기증한 여대생들과 한컷!

쉼터와 함께하며



벼락 같았던 유방암 선고로 눈앞이 깜깜했다. 막상 내 일이 되고 보니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수술은 얼떨결에 했지만 항암 주사를 맞고 온 며칠은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 이제는 방사선이 문제였는데 매일매일 치료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교통비도 그렇고 집이 충남 공주라 날마다 차 타는 것도 힘들 것 같았다. 시누이와 동생이 서울에 있긴 하지만 서로 불편할 거고 번쩍번쩍 민등산이 머리 때문에 더 싫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이 왔다.

쉼터 개소식! 쉼터를 마련했으니 방사선 치료 중 그곳에서 지내라 했다. 9월 6일 쉼터 입소하는 날 쉼터 문을 여는 순간 마음은 더 밝았다. 깨끗한 집이며 새것 같은 물건들! 며칠은 둘이서 조용히 보내고 한 명 두 명이 들어왔고 생활도 익숙해졌다. 마음도 편해지고 웃고 떠들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른다.

“하하호호” 어떤 치료약보다 효과가 100%다. 쉼터를 마련해주신 노동영 박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며 웃을 수 있을까? 겁이 나서 못 만지던 컴퓨터도 배웠다. 메일도 보내고 검색도 하고 재미있었다.

쉼터는 나에게 정말 좋은 곳이었다. 그동안 한술밥 먹고 지내던 환우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다. 쉼터를 떠나도 늘 생각나겠지. 쉼터 이용하시는 환우분 모두가 나처럼 편히 지내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많이 만들었음 좋겠다.

나도 열심히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노박사님도 오래오래 뵈고 정들었던 환우들과도 오래도록 만나야지.

— 황인순 회원

비너스, 세계와 교류

비너스회는 서울대병원 유방암 환우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각 병원의 환우들과 친분을 맺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 환우들과 교류하기도 합니다.
민들레회라는 뜻의 일본의 담뽀뽀회는 후쿠오카에 위치한
큐슈 암센터 유방암 환자들의 모임으로 2002년 9월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담뽀뽀회와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방문해 유방암 행사에 참여하며
유방암 환우들의 건강한 모임을 위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홍콩



홍콩에서 열린 서혜경의 자선콘서트



홍콩환우회, 한유회합창단, 한국비너스회와 함께한 트레킹

일본



일본 환우회 초청
2012년 고창수련회에 오신
일본 유방암환우회 왓또 총회장님

왓또 총회장님(왼쪽에서 두 번째)과 노동영 교수님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리고 유방센터 선생님들

일본 환우회 방문

2012년 일본 도쿄에서 한국비너스회와 일본 유방암 환우회인 아케보노회가 교류했습니다



한국비너스회와 함께하며



후쿠오카에 방문해주신 서울대병원과 선생님들과 비너스회 회원분들을 오랜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리움과 기쁨으로 생각지 않게 서로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자로서 마음의 아픔과 생각이 같아 마음의 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앞으로도 비너스회 여러분과 여러 가지 교류가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니시다 케이코 일본유방암환우회 담뽀뽀 회원

미국



미국 유방암 환우회와 함께하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인 비너스회(당시 회장 이준희)와 Asian American Cancer Fellowship(당시 대표 손경미)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과 노동영 교수님과 함께 이준희 회장, 손경미 대표 등 환우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유방암 환우와 미국 유방암 환우 교민들은 유방암 환우의 치료와 재활, 건강한 사회복귀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유경희 회원



3부 가을

어느 누가 벼들이 노랗게, 과일들이 다디달게
익어가는 계절을 마다할 수 있을까요?
나도 오늘은 그들과 더불어
다디달게 익어가려 합니다

가을 들판은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푸릇한 꽃내기 벼들은 어느새 의젓하게 노오란 새 옷을 자랑하고,
새침한 뽕족 밤나무 열매도 가을에는 함박웃음을 지어 보이지요.
다섯 살 아이처럼 우리는 벼와 밤나무가 드리워진 부산을, 대전을, 광주를
대구를, 서울을 거침없이 달리곤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건강 이야기는 달계만 들려오고,
어여뻐 단정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핑크리본들이 나무깎니다.

마라톤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는 누구나, 가족도 참여 가능한 행사로 전국 5개 도시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의 도움을 받아 이 땅의 모든 여성이 사회 경제적 여건에 구애되지 않고 유방암 예방과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 생활의 질 향상’과 ‘여성과 가정의 건강한 사회 구현’을 소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가입비 전부는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함께하며



10월, 여의도에서 핑크마라톤이 열리는 날이다. 참 날씨가 좋았다, 오랜만에 사진을 잘 찍는 회원님이 참석하여 사진을 부탁했고 덕분에 어느 해보다도 마라톤 사진이 풍성해졌다. 고마워요. 일요일이고 바쁜데 참여해 주셔서 사진봉사까지 해줘서,

각 팀의 회원들을 모시고 여의도 마라톤에 참여해 주신 팀장님들과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수고에 무사히 마라톤 축제가 끝이 났다.

여의도공원에의 느티나무가 차츰차츰 물들고 있었다. 6년 동안 계속 보아 왔는데 유독 느티나무가 더욱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좋다! 언제부터인가 내 눈에 가을의 느티나무가 들어온다.

— 비너스 회원

서울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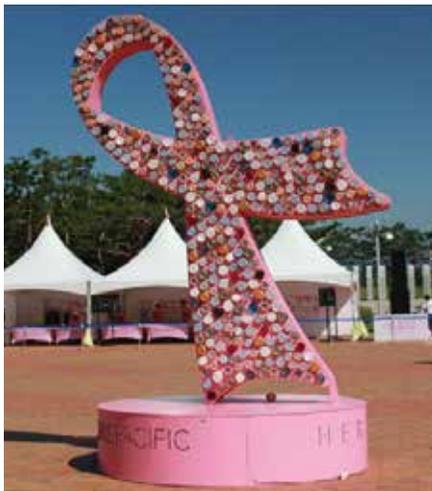


대전



호남





핑크리본 캠페인

핑크리본 캠페인은 건강 및 질환과 관련된 리본 캠페인의 효시로서,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유방암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해 10월에 열립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개최된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암 역학조사, 임상 데이터 발표, 설문조사, 가두 캠페인, 사랑의 마라톤, 그리고 핑크리본을 상징하는 점등식 행사 등을 각계 유명 인사와 내빈, 시민들이 참가해 열리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핑크리본 캠페인을 함께하며



10월 20일, 서울역 주변을 핑크로 물들여 유방암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자가 진단으로 유방암 없는 미래를 만든다는 유방암의식함양 캠페인이 유방건강재단 노동영 교수님 그리고 많은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의 브랜드들이 참여해 곳곳을 온통 핑크로 물들이며 멋지게 전 세계가 함께 하는 핑크리본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서울로 주변을 핑크로 물들이는 시간은 합성과 함께 멋진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저희 한국비즈니스협창단이 이브닝 세리모니에 참여해 많은 분에게 유방암을 이기고 멋진 모습으로 사는 증거의 모습을 아름답고 예쁜 목소리로 온 세상에 들려 드리고 보여 드렸습니다.

축하공연팀이 저의 뒤이어 무대를 너무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 합성을 질러주셨고, 많은 폴리마켓을 체험하시고, 유방암 자가진단법 9가지를 알아가셔서 유방암의 오해와 진실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참여해 보니 가슴도 몽클하고 합창을 소리높여 부르며 감사에 콧등이 찡해 두 번째 곡 도라지꽃을 부를 땐 힘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우리를 축복해주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 비너스 회원





핑크리본 캠페인의 주인공, 우리는 핑크소녀단!









청계천 점등식



롯데타워 점등식



시청 점등식



남산타워 점등식

대국민건강강좌

서울대병원에서는 유방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국민건강강좌를 매년 가을에 개최합니다. 이때는 유방암에 관한 치료에서부터
관리와 복원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의들의 자세하고도 전문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유방암을 진단받았거나 유방암 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알찬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국민건강강좌를 함께하며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대국민건강강좌는 주로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맞춤 강좌였다. 올해는 특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침터에 계신 환우들 등의 유방암 환우들이 많이 참여하였기에 더욱 뜻깊은 강좌가 되었다.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유방복원, 치료 후 영양과 건강, 인조유방 및 인조브라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귀한 강좌를 듣게 해주신 노동영 교수님, 한원식 교수님 그밖에 병원 측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 비너스 회원

메이크업유어라이프

메이크업유어라이프는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유방암 환우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은 물론 외면의 아름다움도 가꿔 우리 한사람 한사람 모두 스스로 존중하고 아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사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환자이기 이전에 여자, 여자이기엔 건강한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가꾸고 자라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은 우리가 가진 희망을 감사하며,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를 증명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는 이날 더 예뻐진답니다.



메이크업유어라이프를 함께하며



메이크업유어라이프 행사 시간 내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화장하는 법을 배울 때는 진지하기까지 했습니다. 화장법을 배우고 나서 자기 얼굴에 화장해 보고 예쁘다고 웃고 “나 어때?” 하고 웃고, 우리 비너스 회원들은 어쩔 그렇게도 다 우아하고 예쁘신지 다들 미스코리아 같았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감사 카드를 썼습니다. 갑자기 감사 카드를 쓰라는데 쓰다 보니 감동의 눈물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났습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신 분들께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쁜 재활용 공병에 예쁜 다육이를 심고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은 희망이, 사랑이, 소망이, 환희 등등 건강하고 싶은 희망을 담아 지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강의실에 들어갈 때보다 마치고 나가실 때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볼들은 발그스레한 것이 수줍은 소녀들 같아 보였습니다.

소녀 감성으로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언제까지나 예쁜 모습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비너스 회원



4부 겨울

하이얀 눈 이불을 덮은 겨울잠 자는 동물들과 씨앗들에게
겨울은 지구가 선물한 삼신할미입니다

흰 이불을 덮은 생명들은 조용하고 고요하게 새로이 태어날 자신을
상상하며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가운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
맛난 것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손뼉을 치고 흥겨워합니다.

힘겨워한 누이의 어깨를 주물러도 주고 언 손도 맞잡아 녹여봅니다.

우리의 겨울은 이렇게 노릇한 온돌 바닥처럼 소르륵하고 포근하게 다가옵니다.



송년회

비너스회 송년의 밤 행사. 매년 열리는 비너스회의 송년회는 비너스의 아버지 노동영 교수님과 비너스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또한 몸과 마음으로 비너스회를 위해 애써주신 회원님들을 위한 파티입니다. 송년회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한 해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즐거운 행사로 모두 날려버립니다. 비너스회의 송년회, 많은 회원이 참석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송년회를 함께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의 여행이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즐겁기만 했네요.

도착하면 또 오랜만에 뵙는 회장님 이하 임원들과 교수님, 서울의 회원님들. 세 번째 참석하는 송년회다 보니 인사를 남기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분들도 제법 생겼고요. 작년에 뵙고 건강한 모습들 다시 뵙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수님과 회장님, 부회장님, 임원들이 많이 반겨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년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라 더 좋았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해에도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에서 인사드립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비너스 회원



2019년 한국의집에서 열린 송년회, 모두 반갑습니다.





2019년 송년회에서 만난 지역팀, 또 반갑습니다.









10주년 기념식



팀장 워크숍

송년회와 더불어 매년 마지막 달, 겨울 바람이 매서운 날엔 비너스회의 회장과 임원님들,
그리고 각 지역의 임원님들이 모여 단합대회를 위해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우리 비너스회를 더욱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일등공신을 해주신
임원분들은 그동안의 수고를 이날 하하호호 웃음으로 교환합니다.
가을 바람이 지나 알싸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비너스회 임원분들은
겨울바람이 전해주는 추억에 살짝 미소를 짓기도 한답니다.







안산 해상으로 간 워크숍, 춥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팀장 워크숍을 함께하며



한 해 수고하신 팀장님, 봉사자님, 그리고 임원들이 함께 멋진 여행을 했습니다. 12월의 유난히도 맑은 공기, 알맞게 차가운 겨울바람 그리고 새파란 하늘! 겨울 중 최고의 날에 우리는 서울서 가까운 근처 섬으로 팀장 워크숍을 떠났다.

처음으로 들린 시화방조제에 있는 달 전망대, 파란 바닷물과 작은 섬 그리고 멋진 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면서 한바탕 웃음으로 달 전망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웃음소리는 여고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까르르 하고 웃어댔다. 그리곤 선재도를 지나 영흥도 수산물직판장에 있는 식당에서 회와 매운탕을 맛있게 먹고(지금 생각해도 너무 맛있고 양도 푸짐했다. 특히 산낙지~) 바닷가로 내려가 갯벌에도 들어가 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비너스에서의 또 한 장의 추억을 만들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구봉도 대부 해솔길을 걸었다, 소나무가 있는 산길을 걷는 분들과 바다로 난 길을 걷는 분들로 나뉘었다, 바다 산책로 길에는 코끼리 열차(이름이 BMW)가 있어서 그것도 타보고 웃고 또 웃었다,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노을이 아름다운 곳 오이도!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오이도는 노을 질 때면 커다란 카메라 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도 운 좋게 붉게 물든 노을을 볼 수 있었는데 환상적이었다. 우리는 노을을 보니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 흥얼거려졌다. 오이도 독방길을 걸으며 노을과 바닷내음을 맘껏 눈과 마음에 행복한 추억으로 담았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기쁘고 모든 분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어서 글을 쓰는 지금 저도 행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팀장님들, 봉사자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비너스 회원



워크숍을 위해 떠난 강화도 보문사의 겨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속초 영랑호에 간 팀장님들



그리운 속초 영랑호에는 아직도 우리의 수다와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5부 그리고 다시 봄

우리의 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겨울이 봄을 시샘하지 않듯,
봄도 겨울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겨울을 보낸 내가 있습니다.
그 길고 추운 겨울을 언제 지나가나 싶어 춥고 외롭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봄은 다시금 내가 누울 따뜻한 등지와
봄의 날숨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용기 내어 봄이 선물한 등지와 봄의 날숨을 먼저 마셔보려 합니다.
높은 하늘을 날아오른 멋진 선배 제비가
나에게도 따뜻한 봄바람을 선물하려는 듯 날아오릅니다.
나는 이제 아프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봄 하늘의 창공을 휘영청 날아오를 테니 말이죠.

1장 비너스회 회원들의 에세이 ‘나의 비너스’

비너스회 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장 노동영 교수님의 에세이 ‘나의 딸 비너스’

비너스의 아버지인 노동영 교수님이 비너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3장 전 간호과장님과 수간호사님의 에세이 ‘우리가 바라본 비너스’

비너스의 시작과 떠오름을 지켜보고 힘들 때마다 언제나 뛰어와 주신 김영미 전 간호과장님과 박세연 수간호사님이 추억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4장 교문들의 에세이 ‘우리의 비너스’

언제나 우리를 위해 두 손 걸어 나서주시는 회장님들, 그녀들이 자신이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슴이 선물한 인생의 진정한 선물

김성덕

엄마는 78살에 서울 아산중앙병원에서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 1998년 봄, 그 나이가 되어서 말이다.

호들갑스러운 놀라움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짙은 해무 같은 두려움이 엄마의 생각과 모든 세포 하나하나의 구멍을 막듯 무겁게 온몸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네 딸은 알고 있었다. 우리 네 딸과 이모 넷은 물론, 엄마 역시 겁이 나서 입을 함부로, 두려움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다. 두렵고 겁나는, 무서운 단어의 의미에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 말을 아꼈다.

당시 엄마는 약 50년 동안 당뇨를 앓았다. 의사 선생님은 당 수치를 맞춘 뒤 수술하신다 했지만 엄마가 그 후의 일을 감당하고 버티며 견디기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나이가 많아 젊은 사람처럼 암세포가 쑥쑥 자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엄마는 당뇨병을 앓으셨지만 매끼 잡곡밥을 해 드시고 술, 담배, 단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으며 60여 년을 버티었다. 그래서인지 합병증 없이 90세에 세상을 떠난 우리 엄마를 보시고 병원장을 지내신 내분비 내과 선생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다.

엄마는 중국 아줌마와 함께 10년을 단독 주택에서 함께 살며 방세를 받으며 지내셨다. 나는 늦게 결혼하여 5년 만에 얻은 아들 하나를 만 10년을 함께하고 보석을 주신 주인에게 먼저 보냈다. 새천년인 2000년에 아들이 없는 엄마는 며느리도 없기에, 서로의 슬픔을 보고 상처를 보듬으며 하루하루 세월의 치유를 받으며 그렇게 나는 15년을 엄마에게로 갔다 오곤 했다. 인생의 슬픈 사연인양 배낭을 메고서.



엄마에게 매일의 장을 보다 드리고 점심은 물론 저녁을 함께하고 오는 일상으로, 나는 40대 후반의 자식 잃은 슬픔과 5년 후 도착한 유방암으로 50대를 보냈다. 엄마는 내가 60이 되던 해 11월 23일에 돌아가셨다.

2006년 어느 날로 기억한다. “엄마, 엄마는 어떻게 가슴에 몽우리가 생긴 걸 알았어?”라고 물었었다. 엄마는 “애, 여름에 땀이 나서 가슴을 만지는데 왼쪽 여기서 뭔가 만져져서 몇 달 동안 수도 없이 만지다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지”라고 말했다. 엄마

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가슴을 만져보니 왼쪽 가슴 겨드랑이 쪽으로 분명하게 만져지는 것이 있어 엄마와 점심을 한 후 건대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았다. 조직을 떼고 일주일 후에 찾아간 종합병원의 선생님은 나에게 “암입니다”라는 답을 했다. “네, 저는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나, 유방암이래.” 남편은 어느 예쁜 여자 눈보다 큰 쌍꺼풀 진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말뚱히 쳐다보았다.

“나 병원에서 조직검사했는데 유방암이래.”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제일가고 서울에서 최고인 서울대학교에서 수술받고 싶은데.”

신랑은 여행 떠나는 사람이 기차 시간표 보듯 암센터, 연대 세브란스, 일원동 삼성병원 등 유방암 담당 의사들을 찾아보더니 “그래, 월요일에 서울대병원으로 가자”라고 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초로 수술 날짜를 받은 뒤 열려 있는 교회 문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중에 서울대병원에서 “보름 정도 앞당겨 수술이 가능한데 어떠세요”라고 물어 모르니 용감하다고 “제가 위험해서 앞당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 제날짜에 수술할게요”라고 했다. 지나고 나니 참 겁 없는, 무식한 결단이었다. 지금은 암은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말이다.

간단한 짐과 무심한 듯한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선 나는 자기공명실에서 들리는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지금도 기억하지만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의 울림이다.

노동영 선생님은 나를 두 번 찾아오셔서 “걱정 마요, 가슴은 살릴게요”라고 말씀해주셨다. 수술 전 오지 않던 남편은 수술실에서 왼쪽 유방이 완전히 잘려져 돌아온 병실에 앉아 있었다.

“사람 써야지 난 못해.”

10분도 안 되어 나의 반쪽은 돈도 안 놓고 자신이 급한 일이 있는 것을 내가 느껴야 안심이

되는 모양으로 “간다” 하며 휙 가버렸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 마, 맹장 수술했다고 생각해.”

아! 이 죽음과 같은 병이 맹장과 같은 수준이라니, 어쩔 이렇게도 크나큰 위로의 문장이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길러진 것인가. 반쪽의 기막힌 단어의 어휘력에 난 준비 안 된 그의 말이 도리어 감사한다.

회진차 들어오는 작은 여선생님은 나에게 수술한 가슴을 보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좀 쳐다보세요.” 그와 나는 20여 일의 차이가 난 듯하다. 오른쪽 예쁜, 아직은 별로 처지지 않은 젖가슴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쓸데없는 남의 것이 딱하니 붙어있는 것 같다. 흥하다. 그래, 지금도 흥하다.

10살 된 아들이 새천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일로 나는 세상의 바닥에 다 내려온 줄 알았다. 하지만 5년 후 유방암 수술을 받으니 그 지하실 밑에 또 다른 지하가 있는 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인간의 모래알 같은 위로를 거절하기로 했다.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잡을 수 없는 흐르는 액처럼 다가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인심 쓰는 척 주는 깍쟁이 인간이 위로하는 그들의 입부터 막기로 했다. 유방암인 것을 들킨 엄마와 우리 자매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누구에게도, 교회에도, 내가 알고 지내는 모두에게도. 그 일은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5여 년 더 살고 그때도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보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다.

나는 귀가 얇은 사람은 아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그해 10월에 끝낸 나는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것으로, 그즈음 몇 달 사이에 근 200만 원을 쓴 것 같다. 그때는 그래야 할 것 같고, 꼭 사야 했고, 먹어야 했고, 내가 나를 꼼짝이 위하지 않으면 어떠한 두려움이 기다렸다는 듯 나를 찾아 들이닥칠 것 같았고 건강한 것들을 챙기면 안전선에 한발 다가선 듯했다.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 같다. 나뿐만 아니라 투병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여러 헛된 이야기들을 잡아보려고 애쓰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아이 일로 일찍이 주님을 만난 나이지만 그런 신께 의지하면서도 추임새처럼 원망도 했다. 그러나 일은 이미 일어났고 절대 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안다.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과정인데 그 일은 마치 사막이 주님이면 나는 부러진 바늘 끝부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나는 숙제를 받아들이고 인

정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다. 우선 내가 즐거워야 한다, 내가 좋아야 한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내가 내 안에서 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배려하면서 나는 물론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의 삶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했다.

나에겐 우리 부부뿐이다. 나의 반쪽과 지내는 결혼제도에 사니 정말 짜증 나고 웬수 같으나 나중에 우리 둘 중 누군가는 혼자 남는다 생각하니, 이해심 넓고 지혜로운 나는 남편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늙은 눈의 나이가 되었다. 나는 인생의 원폭을 맞은 듯한 삶의 긴 관을 통과하고 있다. 색만 다를 뿐 남들도 마찬가지로 일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인생의 파도를 넘으려 애쓴다.

이제는 수술한 지 10여 년이 넘어 가정의학과로 넘겨져 6개월마다 받던 뼈 스캔과 CT 촬영이 없어져 이것도 감사, 감사하다. 2, 3년 전만 해도 웬만해선 혜화동 쪽에서 약속도 잡지 않았는데 요즘은 불만한 연극이 있는지 맛난 돌쇠 아저씨네 좀 다시 가볼까 한다.

우리의 병, 유방암은 완치가 없다고 한다. 신경이 쓰이는 말이지만 나는 늘 내 몸을 아끼며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하며 살아야겠구나 하고 늘어진 마음을 툭툭 건드려본다. 흉이 남은 화상은 열어지기는 해도 말끔히 상처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하는데 나도 유방암을 가슴에 새기듯이 살아가려 한다.

걱정이 해결해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맞짱 뜨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큰 방패를 들어야 한다. 방패로 두려움을 막고 괜한 걱정도 막아내면 된다. 긍정적으로 살고 운동을 하고 해가 되지 않는 음식을 먹어 더 센 방패를 든다. 서로의 병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너스회에 고민을 의논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병에 대한 고민은 노동영 박사님에게 의논하면 된다. 아기자기한 뒤담화는 비너스의 소모임 팀에서...

감사한 일은 이 기회로 세상의 욕심 주먹에서 서서히 손을 펼 수 있게 된 것이다. 욕심낸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게 더 가진다고 해도 편한 잠 못 자고 맘 편히 가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은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나는 이미 깨달았으니 그 교훈을 실행해가면서 “살고 싶다.”

이제 나는 인생에서 가장 편한 60대 중반을 향해 올라간다. 가슴 한쪽을 잃고 많은 것을 느끼고, 알아가고, 배워간다. 참으로 감사한 인생이다.

비너스를 통해 봉사하며 베풀게 되는 나의 삶

박춘숙

2002년 말,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진이 아닐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우리 삼 남매는 이제 어떡하나. 아직 아내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신랑은 이제 어떡하나. 50 평생 이고 살던 내 머리 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날짜를 잡았고 이후 치료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평소 유방암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해 내 마음도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방절제수술을 받아 여성의 상징인 유방을 잃었고, 항암 주사를 두 차례 맞은 후엔 머리카락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 때로는 이대로 눈을 감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8차례에 걸쳐 항암 주사를 맞았고 때로는 서러워하며, 때로는 오기를 부리며 그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왼쪽 첫번째, 박춘숙

조금씩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되면 서부터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말자, 아니 겪더라도 마음이라도 덜 다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다짐하며 적극적으로 서울대병원 세미나에 참석해 유방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인 '비너스회'라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 한 순



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모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미처 다 알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환우들과 함께 나눈 아픔, 위로 덕분에 나는 나 자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만 17년이 되었고, 나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비너스회 모임에 100% 참석해온 유일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환우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노동영 교수님, 비너스 회원들과 함께한 설악산, 한라산, 백두산 산행을 비롯한 서울 근교 산행은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특히 백두산 트래킹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안개 자욱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슬비를 맞으면서도 60명 모두 무사히 종착역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감사했던 기억. 그 다음 날, 전날과는 확연히 다르게 구름 한 점 없는 아름다운 천지를 보면서 '살아 있음에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구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눈부시게 푸르던 하늘과 그 하늘을 맑게 비추던 천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건강하게 보살펴 주셔서 하늘도 감동했다'는 말에 겸손한 말씀과 웃음을 지어주시던 노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몰랐기에 더욱 크게 상처 입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비너스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해주고 위로하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왔던 나 스스로에게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저는 회장으로서는 비너스를 이끌며 교육실에서 환우와의 상담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고, 서울함춘봉사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교수님께서 우리 비너스회 환우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주심에 비너스회 임원으로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올해로 벌써 비너스회가 20살이 되어갑니다. 20살 싱그러운 청춘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비너스회 회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비너스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울 살아가게 만드는 마음이 탄생한 때

서봉석

칼바람이 불을 스치며 꾸짖고 지나간다.

꼭 10년이 되었군. 잊혀지지 않는 2008년, 환갑이 되었던 때의 나의 인생 말이다.

그때 나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머리가 핑 돌며 앞이 안 보여 주저앉아 버렸다.

“암이에요. 유방암입니다.”

세상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나. 남에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아니 왜, 왜, 나만... 분노, 원망, 후회, 격동의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살고 싶었다. 죽기 싫었다. 무서웠다. 숨이 멎는다는 것이 말이다.

그 후 열심히 치료를 받았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치료에 전념했다. 귀동냥, 눈동냥을 열심히 하여 수술, 항암, 방사선을 마쳤다. 그리고 난 생애 첫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 제주도로 출발했다.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올레코스 1코스에 첫발을 디디고 하늘에 감사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땅을 보고 분노하여 울고, 또 반복해서 걸으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추질 않았다. 그리고 살아 있음에 감사함을 느껴본다. 하지만 다른 한마음 속에는 여전히 분노, 원망을 버리질 못하고 자존심이 상한 마음도 넓게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 완쾌하는 일만이 나의 숙제인 것이다.



한 달간의 제주도 생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관, 생각, 바람이 바뀌어버렸다. 교수님의 처방을 꼭 지키고 몸 온도를 높이는 생활을 시작했다. 돌침대에 몸을 맡기고 눈을 뜨면 손바닥에 땀을 매일 100개 정도를 뜨고, 울렁거리는 속을 부둥켜안으면서도 매일매일 밖에 나가 햇볕을 2시간씩 정도 받고 걸으며 그렇게 1년의 세월을 보냈다. 서서히 머리카락도 나고 몸에 살도 붙기 시작했고 험한 눈도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무한 긍정으로 살아가리라 생각하며 고맙고 감사함을 되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처럼 행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해도 오늘도 그때의 마음을 또다시 새긴다.

-경험은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찾은 행복

심윤희

사회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며 늘 환한 웃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40대 후반의 어느 날, 나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유방암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물론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초상집 분위기로 돌변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는지 원망도 하다가 차츰 정신을 차려 받아들이고 내가 암세포와 싸워 이겨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혼란한 머릿속에서도 당대 최고의 명의, 노동영 교수님의 의술만이 유방암을 완치할 수 있다는 믿음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누구나 환자는 의사 선생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도 했던 것 같다.

노교수님은 우리 환우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항상 웃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모습이 엿보인다. 더위가 한창이던 어느 여름에 정기검진을 갔는데 진료를 다 보고 헤어지시면서 노교수님은 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뜬금없는 인사를 하셔서 나를 또 웃게 해주셨다.

암이란 것은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도 동반하기 때문에 감내하기 무척 힘들며 그 고통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 수술 후 한동안의 가벼운 마음도 잠시, 항암 주사 앞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었다.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는 몸도 가누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음식마저 삼키기 곤란했다. 특히 먹은 음식은 배 속의 내장마저 전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울렁거림에 말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지만 살아야겠다는 절박감에 인근 병원을 찾아 링거를 맞으며 기력을 찾기도 했다.

다행히도 2차 항암 주사부터는 견디기 힘든 고통도 차차 줄어들고 지옥보다 더 지긋지긋한 후유증도 없어지고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여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항암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지극정성으로 나를 간호해 주며 집안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막내를 알뜰히 챙기는 일은 모두 남편의 몫이었다. 건강 회복과 항암효과가 탁월한 재료를 아낌없이 구해 와서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한 요리는 나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헌신적인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이런 나의 행복한 모습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그래서 남편에게 늘 감사함을 느낀다. 암을 이기는 데는 가족의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나의 인생 여정에 갑자기 찾아온 병마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인생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다. 오로지 앞만 보고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나에게 한 박자 쉬면서 욕심 없이 살아가라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으며 나아가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쁜 생활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아주 평범한 일상도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방황도 하고 불안하고 궁금한 점도 많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니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건강법도 터득하게 되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고, 그 다음은 운동을 꾸준히 하고 밤에 일찍 자는 것, 마지막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건강 유지를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비너스회 모임이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삶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만나면 웃느라 정신이 없다. 모두들 건강을 잃으면 돈도 그 무엇도 소용이 없

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살아온 동지애라고 할까? 아무튼 우리는 늘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다.

2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던 정든 교단도 미련 없이 떠나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암이 오기 전의 행복했던 그 시절처럼, 지금은 또 다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교수님의 지체 없는 수술과 마음마저 치료해주는 감동적인 인술이 있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여유를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어 이 수기를 이용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노교수님 그리고 주위의 내 건강을 위해 애쓰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진심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해준 모든 사람이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제2의 나의 삶은 행복이고 사랑

안재숙

2010년 5월, 햇볕 좋고 하늘 맑은 날에 유방암이라는 청천벼락 같은 선고를 받았다. 처음 유방암이라는 의사의 말에 정말 눈앞이 하얗고 머리에서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는 한 달 여 시간 동안 하던 일을 마무리하며 암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도 하고, 자책의 시간도 있었다. 내가 암에 걸릴 거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인지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해 안 입히고 큰 욕심 안 부리며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리는 거야. 많은 생각으로 절망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었다.



8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니 그 시간이 정말 꿈같이 지난 것 같다. 수술받고, 항암 받고, 방사선까지 반년을 치료받았다. 수술받고 일주일 입원 동안 언니가 병실을 지켜주었고, 항암 받고 힘들어하는 나를 언니 집에서 간병까지 해주었다. 입안이 헐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내게 많은 음식 중 산나물의 향기가 나의 입맛을 잡아주었다.

입안이 소태를 씹는 것처럼 써서 침을 뱉어도, 물로 씻어내도 그 쓴맛을 제거할 수 없었는데 산나물의 향기는 입안의 쓴맛을 없애주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때 평생 먹을 산나물을 다 먹은 것 같다.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 어지러워 누워서 일어날 수 없었던 날엔 소고기를 구워 먹고 한 시간 후 어지러움이 사라진 경험도 잊을 수 없다.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은 얼마나 길었던지 일 분 이 분 삼 분, 하얗게 지낸 밤의 고통은 무척 심했다

는 정도로 기억에 남아 있다.

특히 영주에 있는 언니랑 나이 차가 10년이 나서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보낸 추억이 많이 없었는데 간병을 받으며 두 자매는 옛이야기에서 이런 저런 얘기로 마음속 얘기를 모두 털어 놓을 수 있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언니와 여동생의, 애뜻한 자매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정엄마랑 언니랑 세 모녀가 일 년에 한번 친정엄마의 생신에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다녀온다.

형부는 하나뿐인 처제가 암이라는 병으로 집에 와 있으니 암에 좋다는 것을 구해주셨다. 두 분 사랑의 보살핌으로 나는 힘든 항암의 시간을 대구와 영주와 서울을 오가며 이겨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도 엄마가 없는 집 안을 서로서로 도와가며 채워주었다. 그때 배웠다. 나 없어도 이 가정이 꾸려진다는 것과, 가족들에게 나의 빈자리가 컸다는 것을. 가정은 한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노력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너스회 대구팀에 가입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으로 정보도 얻고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들이 고스란히 나의 추억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치료받는 중 경험했던 일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언니랑 형부 가족들의 고마움과, 대구 비너스회원들의 격려와, 산나물의 고마움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치료 후의 삶은 달랐다. 발병 전 삶이 첫 번째였다면 치료 후 삶은 제2의 내 삶이 되었다. 가족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고, 가족들도 아내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를 배려해줬고, 엄마의 건강이 가족의 건강임을 느낄 수 있었던 반년의 시간을 우리 가족들이 느끼며 배웠던 시간이었다.

가족들을 위해 일만 하던 엄마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자신을 찾으라고 암으로 나를 거둬나가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나를 찾아서 행복이란 것을 느꼈으며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고, 가족들의 소중함도 알았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 무엇보다 한국비너스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사진찍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우들과의 정보교환으로 건강도 챙기고, 행복한 시간도 만들 수 있었다.

대구 비너스회 회원님들의 얼굴만 떠올려도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 제2의 나의 삶은 행복이고 사랑이다.

그날의 추억

양화진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이야기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진부하리만큼 평범한 외침이 가슴을 내리치던 그 날의 아픈 기록으로 앞으로 제2, 제3의 유방암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가기도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들고 유방센터를 찾아가고, 노동영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를 보러 가던 날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이 쓸쓸함을 더해 주는 만추의 계절이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하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고집스레 혼자서 진료실 문을 들어설 때의 기분은 저의 60평생에서 가장 두렵고 떨렸던, 그래서 그냥 어디론가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어느 날 우연히 왼쪽 가슴에서 만져진 메추리 알 만한 멍울. 그러나 충격도 잠시, 저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해지면서 남편한테도 알리지 않고 배짱 좋게 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앓고 있던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저를 자포자기로 몰아가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일이었는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멍울은 달걀 만한 크기로 부풀어져 갔고 이윽고 참을 수 없는 통증까지 시작되는 바람에 저는 그제야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고 급히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저에게 노동영 선생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걱정 말

아요, 수술 잘하면 되니까. 당장 입원해서 수술합니다.” 하며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지만 이미 제 병의 깊이를 눈치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왜 그리 행복에 찬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세상에 저 혼자 죽을병에 걸린 사람처럼 억울해 누구를 향한 원망인지도 알 수 없는 서러움만 차올랐습니다.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당시 환갑을 앞두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손녀딸도 태어날 텐데 이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술 후에 태어난 제 손녀딸을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무정한 할머니가 되고 말았답니다.

검사결과가 궁금해 가족들이 올려대는 휴대폰도 꺼버린 채, 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창경궁을 지나 비원으로, 비원 옆 골목 원서동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한옥집 골목으로 발길이 옮겨지고 있었지요. 아, 그러나 제 기억 속 골목 안 풍경은 변함이 없건만 저의 옛 집터만 허물어져 낯선 빌딩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눈감아도 흰히 떠오르는 옛집의 구석구석이 가슴 아프게 다가와 서글픔과 허무함으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서성이다 발길을 돌려 제가 다녔던 재동 초등학교 언덕을 넘어 계동, 가회동, 삼청동, 삼청공원에 이르기까지, 방학 때면 골목 소꿉친구들과 어울려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쓰다니던 그 동선을 따라 북촌의 골목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헤어지고 다시는 소식조차 알 길 없는 어린 동무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북촌에서의 13년은 저라는 한 인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야말로 꿈의 요람이었기에 지금은 문화재 가치로서의 한옥을 곱게 보존하고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변화되고 있는 북촌이지만 아직은 옛 모습 그대로인 북촌은 저에게는 언제라도 찾아가고 싶은 추억의 고향입니다.

정처 없는 발길은 경복궁을 지나 광화문에 이르고 드디어 정동길로 접어들었을 때, 아! 그런데 거기에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며 오직 푸른 나래를 펴고 순수와 열정으로 학업에 열중하던 단발머리 작은 소녀가 “괜찮아,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견디어 낼 거야.” 속삭이듯 저를 향해 미소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때 그 자리에는 잡초

만이 우거져 있고, 새삼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 날들이었는지 쓸쓸하게 밀려오는 그리움에 허전함을 달랠 길 없었지만, 새롭게 다짐하며 돌아서는 발길이기도 했습니다.

초로의 모습으로 아픈 마음 달래며 찾아간 그 길에도 어둠이 내리고 저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곱았지만 마지막 동선인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고 시청 앞 남대문에 이르러서야 그날의 저의 방향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날의 추억 속에는 유방암 3기라는 절망을 뚫고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여인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항암과 수술, 그리고 또 항암. 수술 결과는 유방암 2기였지만 종양내과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일 년에 걸친 표적항암 치료까지 마치고 나서야 저의 치료는 끝이 날 듯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살아났지요.

그래도 시간은 약이였는지 독한 항암으로 몽땅 빠져버렸던 눈썹도 다시 나고 머리카락도 다시 나기 시작해 그 불편했던 가발도 벗어 던진 지 오래되었지만 겨드랑이 림프절 절개로 인해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한쪽 팔의 둔한 통증이, 그리고 아직도 무겁게 느껴지는 실리곤의 무게가 제가 유방암 환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딸아 괜찮아, 모두 괜찮아질 거야

유경희

상심이 클 수밖에 없는 유방암 환우에겐 가족이나 친구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내가 ‘함께하면 괜찮을 거야’라는 단순한 진리를 철학으로 삼은 이유다.

아빠는 대장암에 눈을 감았다. 수술 59일 만의 사망. 날벼락이었지만 끝이 아니었다. 병마는 대를 물고 딸을 찾아왔다. 이번엔 유방암이었다. 생명의 소중한 젖줄인 가슴을 자신들의 ‘숙



오른쪽, 유경희

주’로 만든 셈이었다. 하지만 딸은 아빠와 달랐다. 암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몹쓸 병마를 애써 이겨냈고,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벌써 10년째 헌신이다. 이런 나를 두고 사람들은 “웃음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웃음 뒤에 무거운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걸 아는 이는 드물다. 암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둔 아빠 때문에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걸 눈치챈 이도 없다.

먼저 아팠던 건 엄마였다. 풍성한 살집 탓인지 혈압이 높았던 엄마는 뇌졸중으로 두 번이나 쓰러졌다. 몸도, 마음도 성치 않은 엄마 곁을 지킨 이는 아빠였다. 8살 어린 아내, 아빠에겐 곱디고운 여인이었다. “평생 아끼며 살겠다”고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었던 사이였다.

티끌 하나도 못 넘기는 남자, 담배꽁초를 말려서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 몹시 마른 몸에 꼬장꼬장한 성격의 남자... 예민한 아빠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엄마의 병은 견디기 힘든

형벌 같았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아빠는 단 한 번도 체념하지 않았다. 뇌졸중 탓에 거동이 어려운 엄마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걸 세심하게 챙겼다. 때론 심장에 멍이 들고, 가슴이 굽혔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빠를 찾아온 건 행복이 아니었다. 병마였다.

고통스러운 변비였다. 배에 가스가 차고, 잔변감에 시달리기 일쑤였다. 아빠는 “말하기도 창피한 병에 걸렸다”면서 혀를 꼴꼴 차곤 했지만 엄마에겐 알리지 않았다. 아빠에게 중요한 건 엄마의 뇌졸중이었지 자신의 잔병이 아니었다. 그러다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건 변비가 생긴 지 7년여 만인 2004년 가을이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혈변을 쏟아낸 아빠는 교직생활을 하던 작은 딸에게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상하구나.”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대장암이었다. 엄마도, 자식들도 할 말을 잃었다.

체념이란 걸 몰랐던 아빠도 상심했다. 엄마를 잠시나마 보살펴주지 못한다는 자책 때문이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괜찮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다짐은 끝인사가 됐다. 수술 후 아빠는 눈을 뜨지 못했다. 장이 유착되면서 폐혈증이 찾아온 탓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59일 만이었다. 자식들은 소리 없이 통곡했다. 엄마의 가슴벽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는 암에 졌다.

찬바람이 거친 본색을 드러내던 2008년 11월 말. 딸은 냉랭한 수술대에 올랐다. 마른 몸매도, 꼬장꼬장한 성격도 아빠를 빼닮은 딸의 가슴에 암이 파고든 탓이었다. 딸에게 암은 단순한 병마가 아니었다. ‘트라우마’였다. 대장암에 걸린 아빠가 59일 만에 숨을 거두셨으니, 감정이 흔들릴 만도 했다. 더구나 암이 뿌리를 내린 곳은 하필 ‘가슴’이었다. 두 아이의 ‘생명줄’이던 소중한 가슴이 암의 숙주가 된 셈이었다. 딸은 주체할 수 없는 설움을 느꼈다. 아속한 운명이 찬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난 난생처음 죽음을 떠올렸다. ‘내가 죽은 뒤 내 주변’도 생각했다. 섬뜩한 추정이었지만 약해진 마음은 몸을 지배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진 다음 날부터 딸은 집 안 곳곳을 청소했다. 문지방이든 마루든 옷장이든 내키는 대로였다.

“드르륵~깍~드르륵.” 멀리서 탁한 음이 울렸다. 묵직한 바퀴들이 철로와 맞닿는 소리. 칠흑 같은 터널을 기차가 내달렸고, 환한 빛이 쏟아져나왔다. 딸은 눈을 떴다. 아무도 없는 방, 고요했다. 시침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술방에 들어간 지 5시간 만이었다. 딸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살았구나, 살았어!”

나는 칠흑 같은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마취에서 깬다. 나는 그날의 밝은



햇빛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제야 ‘살았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암은 그만큼 공포스러운 존재다. 그렇다고 암에 힘없이 무릎을 꿇은 건 아니었다.

항암치료를 시작하자 식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빠졌다. 두통은 온종일 말초신경을 건드렸다. 손가락의 허물도 한 꺼풀씩 벗겨졌다. 엄지, 검지, 중지... 순서대로였다.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졌고 몰골은 점점 형편없어졌다. 더 괴로운 건 ‘외로움’이었다. 목욕탕도, 미용실도 갈 수 없었다. 흉한 얼굴과 주글주글해진 가슴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럴수록 한탄만 쌓여갔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단 말인가. 왜 우리 집에만 병마가 찾아온단 말인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왜 나만...”

항암치료를 받을 때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서울대학교병원 구내이발소에서 머리를 박박 깎을 땐 눈물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그때 그 바리칸의 서늘한 감촉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1차 항암치료를 마치고 병원 진료가 예약된 날이었다. 여전히 냉기를 품은 바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몰골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추위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의 낯선 시선이었다. 거울에 비친 박박머리가 미치도록 싫었다.

항암치료 1세트(1~4차)가 끝나자 2009년 3월, 봄이 왔다. 난 암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왜 암에 걸렸는지 알아야 했다. 암의 징조와 예후도 깨쳐야 했다. ‘유방암 환자들의 모임’인 한

국비너스회 용산지회의 문을 두드린 것도 더 많은 암 치료 자료를 얻기 위해서였다. 배움은 모든 걸 바꿔놨다. 고기와 단빵을 좋아했던 나는 채식을 시작했다. 틈만 나면 산등성이를 타면서 자연과 호흡했다. 바람은 희망을 건넸고, 햇빛은 꿈을 선물했다.

항암치료 후 볼품없어진 몸에도 변화가 생겼다. 새하얗던 두피를 뚫고 머리카락이 자랐다. 어둡게 물들었던 얼굴도 색조를 찾아갔다. 움푹 찢던 양쪽 볼에는 살이 살짝 올라왔다. 1차 항암치료를 받고 산등성을 처음 탔을 때 “저 앞을 내년에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상념에 사로잡히곤 했다. 하지만 오늘도 그 앞을 보고 있다.

나는 곧장 ‘한국유방암예방홍보강사회(한유예강)’에 들어가 교육을 받았다. 1년에 한 번씩 암 강사를 배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암의 예방수칙 등을 널리 알릴 생각에서였다. 교직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작지만 단단한 포부도 있었다. 암 자료를 찾기 위해 가입했던 비너스회의 일도 그 무렵 시작했다. 총무·부회장을 거쳐 5년째 회장도 맡았다.

어느 날의 늦은 밤이었다. 1기 유방암이지만 종양이 넓게 퍼져 한쪽 가슴을 떼 내야 하는 중년의 환우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칼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으면서 밤새 울었다.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죄박에 없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쁜 몸만 망가졌다며 분을 끓였다. 묵언이 때론 위로라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암 환우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할 때 가슴이 아프다. 그럴 때면 나는 집 근처 서달산 산책로를 걷는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의 목소리로 “괜찮다, 괜찮아.”라는 말이 들리는 듯하다. 나도 답해본다.

“괜찮아, 모두들 괜찮아질 거야.”

새롭게 사는 삶 5년째

이승연

암 환자는 공기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지요. 저는 공기는 최고로 좋다는 곳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 겨울이면 산천어축제로 유명한 곳, 잘생기고 유쾌하신 아버지와 새침하지만 웃어른 공경 잘하시고 음식 솜씨 좋으신 장손 며느리인 어머니의 3남 1녀, 대대로 5대째 딸이 없는 딸 귀한 집에 예쁜 딸로 태어나 코 짙짙 흘러며 아! 특히 옷소매가 반질거리도록 코를 닦으며 좋은 친구들 많은 경희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 암 수술 후 오래 살아보겠다 바꾼 이름 이승연으로 살고 있지만요. 얼마 전까진 어색했던 이름도 이젠 익숙해져 가는 게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말해주네요.



그리고 이제야 아이들 생각도 먼저 하게 되었죠. 수술 직후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온통 머릿속을 차지해 내 것, 옷, 몸에 좋다는 각종 건강식품들, 마사지, 좋은 곳에 가서 좋은공기 마시기... 이제야 돌아보니 아이들이 어리고 진로와 직장 잡는 일 등 신경 써 줄 것이 많이 보이네요. '내가 없으면 자식도, 남편도 필요 없어'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게 어린 딸들에게 미안하고 더 잘해줘야지 하

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살만해진 모양입니다.

나 먹을 것보다 딸들 먹을 거, 남편 먹을 거 준비하게 되고 힘들어서 하지 않았던 집안일이 눈에 들어오고 뭐든지 함께 많이 해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지금은 유방암 수술한 지 5년, 갑상선암 수술한 지 3년이 되었네요.

막막했던 처음과는 달리 자신감도 생겼고 사는 재미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나도 모르게 냈던 화, 그리고 이상한 행동들, 뭐든 꼬이게 보여서 행동 후 후회했던 것들.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서 이런 날 보며 기특하단 생각도 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봐 주고 이해해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또 비너스회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단 생각이 요즘 드는 내 생각입니다.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건 수술하고 병실에서 밥을 먹는데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울음, 참을 수없이 하염없이 나왔던 눈물, 그런 나를 보며 큰 눈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던 큰딸. 많이도 화가 나고 서러워서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약한 것이 찾아와 괴롭히는지.

유방암 이후 친구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저 그런 친구, 좋은 친구, 뼈저리게 느끼며 둘로 나뉜 친구들. 아픔에서 나온 생각에서인지 지금도 그것이 바뀌지 않네요. 아픔만큼 성숙하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아픈 만큼 가끔은 찌질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겪어보지 않음 모르는 것에서 오는 서러움, 온통 서운한 거 뿐이었던 아팠던 그때. 그래도 지금은 용됐습니다. 웃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하는 내가 되었답니다.

수술 전 나로 많이 돌아온 지금, 더 오래 지속해서 건강해지고 싶어 열심히 운동하려고 해요. 진짜 좋아하던 등산도 이젠 잘 못 올라가지만 서서히 노력해 즐기려고 해요. 낭만적이고 거닐고 싶었던 대학로, 유방암 걸리고 징하게 많이 거닐게 되었네요. 엇그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2박 3일 다녀왔는데요, 평범한 친구들과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나는 늘 환자라고 생각하며 우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환자 꼬리표 제거하고 잘 살고 싶어요. 백세시대라고들 하잖아요. 나도 팔팔하게 백세까지 잘살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명으로 좀 귀가 시끄럽지만요. ㅎㅎㅎ

웃음이 많은 나, 웃음이 예쁜 나.

많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게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만난 나의 비너스

이효순

지금 같은 시대에 저처럼 인생 산 사람도 있을까요?
시집살이부터 적으려 합니다. 1983년 26살이 되던 해, 고종 사촌 오빠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나이는 28살이었고 시골 촌에서 제일 갑부라며 사촌오빠는 너만 잘하면 모든 걸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5남매 중 장남인 남편과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홀시어머니 연세는 48세로 너무 젊으셨어요.



나의 고생은, 아니 시집살이는 신혼여행 다녀온 날 시작됐죠.

첫날 한복을 입고 시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지 말고 바지를 입고 일하라고 하셨다. 시댁 근처에는 군부대가 많았다.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중식, 한식, 슈퍼마켓, 민박, 목장, 세탁소를 운영하는 일종의 대규모 사업체로 지금의 게스트하우스와 같다.

그때는 자가용이 별로 없던 시대여서 군부대 면회객은 우리 가게에서 숙식을 했는데 15개 인 방이 손님으로 꽉 찼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면 무슨 잔칫집 마냥 손님이 엄청났다. 식당에도 세탁소, 슈퍼에도 손님들로 정신이 없었는데 주말에만 200만 원 넘게 벌었다. 당연히 온 식구들이 모두 동원돼 일했다. 남이라곤 주방장 한 사람뿐이었다.

나는 온종일 설거지를 했다. 더운물도 안 나오는 시절이라 겨울엔 주방이 얼마나 추운지

얼굴, 손, 발 다 동상이 걸리고 여름엔 습진에 걸려 몸은 다 망가졌다. 평일엔 민박의 이불 빨래와 식구들 빨래는 물론 시어머니, 동생들 속옷까지 다 시킨다. 딸들은 평일에 일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주말에만 일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시장 가서 버린 배추 주워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김치 하란다. 일일이 다듬어 이를 동안 김치를 했다. 깍두기 담그고 무도 주워오신다. 매일 매일 허리 펴 날이 없었다. 그 와중에 임신을 했다. 신혼여행에서 생긴 것 같았다. 아기를 가져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을 시킨다. 입덧을 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사주는 사람 하나 없다.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시어머니가 외출하면 소고기를 볶아 몰래 먹었다. 나중에 소고기가 없어진 걸 알고 혼이 났다. 시어머니는 어딜 가서도 며느리가 놀까 일을 시켜놓고 가신다. 질투가 심해서 우리 부부와 함께 한방에서 같이 잘 때도 많았다.

임신 8개월이 됐을 때의 일이다. 300포기 김장을 하신단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둘이서만 이를 동안 배추 절이고 무 씻고 채 썰고, 김장하는 날에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김장을 했다. 하필이면 김장하는 날 시할머니 제사다. 밤 12시까지 음식을 만들고 12시 30분에 제사를 지냈다. 아기가 힘든지 배 속이 몽쳐 있고 너무 힘들어 임신만 안 했으면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으니 하소연 할 데도, 갈 데도 없었다. 배가 불러도 임신복 하나 안 사준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무서워 찢찢맨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선지 임신 내내 배도 많이 안 나왔다.

임신 8개월하고 보름 됐을 때 배가 아팠다.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이 조금 열려 조산할 것 같다며 집에 가서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으란다. 집에 와서 누워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일 안 하고 뼈들어 자빠져 있다고 야단이다.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겉으론 그래도 속으로 알아주겠지 했다.

그 이튿날 다시 통증이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께서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다. 길에서 낳을망정 데려가겠다고, 당신은 일하다 밭에서 아기를 낳았다며.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 저렇게 무식한 시어머니는 처음 봤다고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했으면 조산하겠냐고 그러신다. 시어머니께 입원하겠다고 말했더니 화가 나서 가서서 나 혼자 입원했다. 남편은 바빠서 오지도 못했다. 친정엄마한테 전화해 친정엄마, 오빠, 올케언니, 조카까지 와줬다. 친정 식구들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다. 얼굴은 붉고 코도 동상이 걸려 빨갛다. 손이며 발가락이며 통통 부었다. 서러운 마음에 그동안 겪은 일을 얘기했다. 엄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오빠는 아기는 그 집안 핏줄이니 그

집에서 키우게 하고 헤어지란다.

병원에서 특실을 쥐 가족과 함께 있었다. 밤 11시쯤 통증이 오더니 밤새 진통이 왔다. 다음 날 오전 10시 예쁜 딸을 낳았다.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에서 인큐베이터를 준비했는데 다행히 아기가 건강해 안 들어가도 되겠다고 했다. 친정 오빠는 아기를 병원에 두고 가자고 했다. 하지만 시댁에서 노예처럼 살았어도 내 아기를 두고 갈 순 없었다. 시어머니께 사정사정해서 친정에서 몸조리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보름 만에 시댁에 왔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이 흘러 1999년 10월 어느 날, 시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연세는 64세. 시어머니는 사채업도 하셨다. 돈 쓴 사람은 있는데 갚는 사람이 없었다. 차용증이 있어도 안 준다. 남편은 시어머니 그늘에서 살다 돌아가시니깐 정신을 못 차렸다. 사기도 당하고 이것저것 사업하며 그 많은 재산 땅, 집 다 털어먹었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업이 다 망하고 친정 오빠가 도와줘 군부대 안에서 겨우 장사를 다시 시작했다. 다행히 사업이 잘돼 엄청나게 바빴다.

2008년 어느 날, 오른쪽 가슴에 팔알만 한 것이 딱딱하게 만져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다. 결과는 전화로 알려준다. 그때 휴대폰이 없어서 검사 결과는 휴대폰이 있는 남편에게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는 병원의 연락을 전했는데 남편은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남편은 병원에서 연락이 안 왔으며 이상이 없으니 연락 안 했겠지 말했다. 1년이 지나자 혹이 조금 커진 것 같았다. 남편은 얼굴 혈색도 좋고 가슴 혈색도 좋으니 이상 없을 거라고 한다.

그래도 이상해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작년에 조직검사 했어요?” 물어보신다. 안 했다고 하니 깜짝 놀라며 바로 조직검사했다. 이를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유방암이라고 하신다. 대학 병원 가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받고 5년 동안 타목시펜 먹고. 이 과정은 누구나 비슷한 과정이기에 생략하고 싶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1년 동안은 일을 못 했다. 그동안 큰딸을 시집보내고 작은딸 시집보내고 나니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사업도 3년 전에 접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잠은 7시간 푹 잔다. 저녁 9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 기상하니 개운하고 상쾌하다.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다.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현미 송능을 따끈하게 한잔 마신다. 3가지 이상의 과일을 먹고 5가지 견과류인 브라질넛트, 사차인치, 아몬드, 땅콩, 호두를 먹는다. 달걀도 2개 삶아 먹고 아침 7시 30분에 헬스장에 간다. 이미 여러 어르신이 나오시는데 60대에서 80대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할머니, 아주머니

라 부르지 않고 무조건 언니라 부른다. 아침마다 언니들은 돌아가며 음식을 가져온다. 떡이며 고구마, 과일 등을 먹으면서 1시간은 하하 호호 웃고 떠드는데 이 시간이 너무 즐겁다. 며칠 안 보면 보고 싶은 언니들이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운동한다. 스트레칭, 근력운동, 유산소운동까지 고루 운동하는데 처음엔 오른쪽 가슴 수술한 자리 때문에 오른팔을 3kg 이상 들기 힘들었다. 무리하다 팔이 너무 아파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10kg도 든다. 그만큼 근력이 생겼다. 러닝머신은 5km 이상 걷는다. 8년 전만 해도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무릎, 허벅지 근육이 생겨 아픈 곳이 없다.

비록 내가 암 환자지만 지금은 40대 못지않게 건강하다. 지금 나는 60대지만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오히려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하루하루 스트레스 안 받으려 노력한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항암 고통도 겪은 난데 웬만한 건 가볍게 넘긴다. 점심은 현미밥에 갖은 채수 샐러드와 닭고기를 주로 먹는다. 저녁은 5시쯤 먹는다. 야식은 안 먹고 따뜻한 물을 자기 전까지 하루에 8잔 마신다.

한때 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생목숨은 끊을 수 없으니 차라리 암이라도 걸려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고통 속에서 살 줄 알았는데 이제 딸들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딸들, 인생 3막은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일깨워준 딸과 사위 덕분에 참고 견뎌온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2009년 항암 후유증으로 우울하고 힘들 때 큰딸이 비너스회 환우모임에 가입을 해줬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안개가 걷히고 태양을 만난 것처럼 내게 비너스는 신세계였다. 비너스 회원들은 모두 활기차고 표정이 밝았다. 팀원들은 다달이 모임을 갖는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새로운 걸 배워나간다. 안 보면 보고 싶을 정도로 예쁜 동생들인데 생각해 보니 벌써 10년이 지났다.

10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10주년 송년회, 수련회, 세미나 등 노동영 교수님과 회장님, 임원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유방암 환우 여러분 힘내세요, 이겨내면 행복해집니다.

같은 별을 보고 살아온 가족이 전해준 나만의 지구본

이희숙

피톤치드와 따스한 햇빛이 자리 잡고 있는 북한산 밑자락. 새해를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해를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덧 아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2년하고도 7개월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슴에 둘러싼 알 수 없는 그 무엇들이 서서히 삭아지고 바람처럼 흔들렸던 마음의 평정심도 굳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가슴에 멍울이 잡혀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암흑으로 변해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다음은 후회 내가 왜 관리를 못했을까라는 생각. 좌절감과 가슴이 찢린듯하게 아파왔습니다. 내 몸은 이미 자리 잡기 시작한 암세포보다 스스로 괴롭히는 이런저런 생각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주여!! 제발 나의 곁에 천사들을 불러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소서.





눈물을 삼키며 어찌해야 하나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한여름 수술 끝나고 집에 오는데 천국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들들 부모님 형제 친구들을 보게 되어 무엇보다 기뻐했습니다. 제가 죽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게 더 맘이 아프고 무서웠습니다. 아직 몸은 아프지만 몸에 붙어있는 암 덩어리를 떼어냈다고 생각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갑상선암 이어 유방암 두 번이나 무서운 병을 겪고 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다시는 병원에 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착하게 착하게 살겠다고요. 그리고 또 죄를 짓겠지요.

같은 별을 보고 아픔을 함께 한 우리 가족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본 사주면서 여행 많이 다니라는 남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

정지영

유방암 발병 시기는 2017년도. 발병 전에 8년 전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외환 위기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 가슴이 에이던 때였다. 설상가상으로 운영해오던 두 개의 가게도 몇 개월 만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이제 정말 밑바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생활은 열악했다.

나는 일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여의치 않았다. 다행히 동생의 도움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재미있었다. 한가롭게 취해 취미생활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차였다. 그때 불쑥 암이 나를 찾아왔다. 취미생활을 같이 하던 지인의 극성으로 분당에 있는 종합검진 센터에서 검진을 받으며 알게 됐다. 결과는 당혹스러웠다. 유방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암은 바로 발병한 게 아니라 이미 8~9년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서서히 자라난 것 같았다.

다행히 치명적 질병 암보험과 유니버설 종신 보험에 가입했던 나는 치료비 문제만큼은 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2005년 해외여행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설계사로 활동했던 친구의



동생이 인천국제공항까지 와서 보험 가입 청약 서명을 받아 주었기에 가능했다. 그 친구의 열정이 큰 보탬이 됐다.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부분 절제술을 받고 5일 후 퇴원해 중앙학과 교수님에게서 치료 제안을 받고 33회 방사선 치료와 6번의 항암 주사를 맞았다. 허셉틴이라는 신약도 18번 맞아야 했다. 총 2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치료법이었다. 1차 항암치료를 받기 전 유방암 항암 주사는 머리가 다 빠진다 해서 미리 미장원에 들러 삭발을 하고 가발을 썼다.

1차 항암을 맞고 나니 정말 듣던 대로 항암제가 온몸을 다 흔들고 있었다. 오심, 구토, 설사 등으로 인해 하루만 지나도 몸무게가 2kg이나 빠져있었다. 항암 주사를 맞고 포천의 요양 병원에 입원해 식이요법, 쑥뜸, 운동,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지냈다. 매주 수요일은 온천을 갔다 머리를 감으려는데 짧은 머리카락이 쑥쑥 빠졌다. 항암 주사를 맞고 15일이 지나면 머리가 다 빠진다고 하더니 어김이 없었다. 그날 저녁 스카치테이프로 머리카락을 다 떼어내며 얼마나 울었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식구들에게만큼은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가족이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병원에 올 때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했다. 두 번째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온다.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영 교수님 외 모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모든 치료비와 입원비는 보험 혜택을 받아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 암이란 질병은 치료가 끝나도 계속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식이요법도 잘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완치 판정을 받은 나는 현재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항상 자부심을 갖고 모든 사람 만나 상담할 때도 내 경험과 보험의 고마움을 알리고 있다.

겸허하게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살고, 봉사하며, 항상 깨어있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더 크게 웃고 살고 싶다.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 그보다 더 아프게 다가온 부모됨의 의미

채복자

발병 사실을 안 건 2003년 12월의 일이다. 12월 31일, 병원을 찾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방암 검사를 받고, 2004년 2월에 다시 조직검사를 받았다. 군대에 있던 큰아들은 걱정이 된다면 특별휴가를 받아 나의 곁을 지키던 때였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기에 외식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전화로 유방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날, 식사 시간 내내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만 꾸역꾸역 먹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별거 아닐 거라고, 요즘은 암도 치료 받으면 금세 낫는다더라, 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사실 나는 코앞까지 바짝 다가온 죽음이 두려웠다.

2004년 3월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보다 수술 후의 항암 치료가 더 힘들었다. 고통이 멈추어지지 않는 날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베란다며 주방이며 온 집 안을 쓸고 닦고 윤을 냈다. 그렇게 겨우 치료를 마칠 무렵 이번엔 왼쪽 가슴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2차 수술을 받았다. 그즈음 되고 나니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보다 남겨질 가족 생각에 더 애달팠다. 그리고 보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말씀이 생각났다. ‘내



가 눈감고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남겨진 너희가 가슴 아파할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던 아버지 말씀이 뼈에 사무치고 이제는 내 이야기로 다가왔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내가 정말 엄마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아내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아파하고 썩씩해져야겠다 결심했다. 이십여 년 전 큰아이에게 모유 수유한 가슴은 이제 없지만 상실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가슴이 없어도 날 엄마로, 아내로 봐주는 가족이 있으니 말이다.

항암 치료 기간 동안 몸무게가 7kg이나 줄었다. 남들은 돈 주고 하는 다이어트를 후다닥 쉽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오른쪽 유두가 살짝 처졌는데 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 좌우 균형이 맞았다. 이것 역시 공짜로 성형수술 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항암 치료 때는 머리 카락이 빠져서 칙칙한 병거지 모자 대신 화려한 술이 달린 두건을 쓰기 시작했는데 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굉장히 멋쟁이라고 생각했단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테니스 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절개 수술로 겨드랑이 림프를 잘라내 거동이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심스레 다시 테니스를 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요즘 나를 가장 기운 나게 만들어준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살아있음을 느낀다

물망초

2016년 4월 꽃피는 봄,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몸은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어느 날 우연히 엄앵란 씨가 출연한 <생로병사> 프로그램의 노동영 교수님 방송을 보다가 나도 자가검진해 볼까 싶어 가슴을 구석구석 꼼꼼히 만지는데 돌처럼 딱딱한 엄지손톱만 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순간 멍했습니다. 힘든 날도 좋은 날도 모두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눈물만 나오더군요. 하늘이 까매지면서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 죽음보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겪어야 할 슬픔이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문밖에 나가면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내 눈에는 수많은 꽃잎이 예쁘지가 않고 방울방울 눈물처럼 슬퍼 보였습니다.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서 유방암 검진을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어찌나 슬프던지요. 큰 병원 가라고 하더군요.

서울대학병원에 예약해놓고 암 수술하면 다 죽는 줄 알았기에 암에 걸려 몇 년 투병하다 떠나는, 사연 있는 TV 방송 보면서 울고, 어느 날 새벽에는 잠이 안 와 서랍 정리를 하고 있으니 남편이 쓸데없이 뭐하냐고 하더라고요.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진료 후 검사 결과가 상피내암(0기), 암 전 단계인 생존율 높은 유방암이라 어찌나 다행이고 좋던지요.

가게 임시휴업 써 붙이고 공기 좋은 휴양림만 일주하듯이 다녀왔는데 칠갑산 여행길에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에다 두 손 모아 수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겠지요.

수술은 부분절제하고 퇴원하게 되었고 외래진료 보러 갔는데 안타깝게 피부에 침윤이 되어 최종진단이 암이라고 했습니다. 수용체 음성 약 복용은 없고 임파선 전이가 안 돼서 항암 치료는 없고 방사선 치료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힘들다는 항암 치료 안 하는 걸 감사하자 생각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33번 하면서 식단부터 바꾸고 건강하게 생활하던 중 비너스회에 가입해서 좋은 언니들도 만났고 핑크마라톤, 1박 2일 수련회 등등 가족도 비너스회 일이라면 무조건 참석하라고 하더군요. 웃는 날도 늘고 얼굴이 밝아져서 좋다고요.

2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수술한 쪽 유두에서 진물이 나와 검사를 했는데 재발되어 다시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진료 때는 의사 앞에서 울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네요. 남편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난 또다시...

부분절제하면 방사능 치료할 수 있는 양을 먼저 다 써어서 안 되고, 남은 부분에서 재발할 수도 있고 전절제는 상실감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나이 52이면 젊은데 말이죠.

남편은 전절제하라고, 재발위험 안고 사느니 가슴 한쪽 없는 게 낫지 않냐며 자기는 괜찮다고 위로를 하네요. 한쪽 없는 나의 가슴을 생각하니 착잡한 심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비너스회 모임에서 친해진 언니랑 통화하면서 또다시 울고 전절한 분들도 껌나게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 수술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해야지. 마음 정리도 할 겸 수술 전에 베트남 여행을 떠났습니다.

2018년 4월, 수술 후 회복실에서 가슴 한쪽이 없다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울다 보니

호흡이 안 돼서 열은 나고 밤새 병동 돌면서 호흡하다 잠들면 간호사님이 일어나라 깨워
일으켜 등을 두들겨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간호사님. ♡

비너스회에 가입해서 좋은 인연으로 좋은 분들 만나고 3년이란 시간을 보낸 것에 항상 감
사하게 생각하고 이 인연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 욕심을 내려놓고 여행도 많이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비너스회 팀원 동생이 그러
대요. 10년을 20년처럼 불꽃처럼 살면서 세계여행 하는 게 꿈이라고요. 저도 건강만 허락한
다면 세계여행을 꿈꿔 보려고요. 첫 번째 수술 이후 짬짬이 해외여행 5번 다녀오고, 올봄 3
월 10일에는 동유럽 4개국 여행을 다녀올까 합니다.

2019년 1월 1일, 무박 기차 해맞이 여행. 망상해변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일 년 또 살았
구나, 아프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잘 견뎠다고 제 자신한테 토닥토닥~~

살아 있는 것에 의미를 두자. 그리고 내년에도 또 다시 해맞이를 하면서 또 일 년 알차게 보
내자.

살다 보면 웃는 일, 좋은 날이 마니마니 오겠지요. ㅎㅎ

나와 유방암

사와노 미치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에 전통 도자기 생산에 관한 글이 나오면 엄마가 저를 데리고 현지를 방문하는 식으로 직접 가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자세를 가르쳐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일본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해외여행도 가본 적이 없었던 저는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어 열심히 배운 상태가 아니었고 한국의 어학당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도 성적은 초급 반에서 꼴등이었습니다. 어학당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속상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수업이 끝나면 탐험하러 나가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 있는 모든 게 신기하고 흥미로웠지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혼자 미용실에 가서 컷을 시켜 본 것도 좋은 추억입니다. 홈스테이로 머문 집의 친구도, 친구 부모님께서도 매우 친절하셔서 저는 저의 모자란 한국어 실력에 답답해하면서 이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학연수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겨울 방학의 어학연수, 다음 해에는 1년의 교환학생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시절은 정이 많은 지방 국립대에서 공부한 덕분에 주변 분들이 저에게 신경을 잘 써주셨고, 지방 특색으로 지역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친하게 지낸 언니의 권유로 대학원은 한국에서 정규학생으로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정규학생으로 들어간 저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틈도 없이 산더미 같은 숙제를 해내야 했습니다. 학부 시절의 교환학생은 성적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손님'이었다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침 엔화의 환율이 매우 안 좋은 시기였고 저는 생활비를 아끼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교통비를 아끼느라 웬만하면 버스를 안 타고 걸어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쌀이 비싸 못 사고 밥솥에 보리만 넣어 밥을 하고 된장을 반찬으로 먹는 정도였습니다. 선배님의 일을 도와드렸을 때 맛있는 것을 사주시겠다고 하니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별마 한 끼 대신에 쌀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밥을 부실하게 해 먹고 버스를 안 타고 걸어다니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체력도 소모되고, 숙제를 할 힘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대학원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을 함께한 동기들과 선후배들, 모든 게 모자란 저를 잘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과의 인연은 무엇보다 귀하고 지금도 교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에서 느슨하게 공부해온 친구와 비교할 때 백세계 숙제를 해온 방식이 저의 든든한 실력을 형성해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사과정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전라도의 농촌 마을에서 1년 동안 숙식하면서 현지 연구를 하고 석사논문을 쓴 것 또한 저에게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저는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일본에서 연구직으로 취직하려면 박사과정은 일본에서 다니는 게 좋을 거라고 한국과 일본의 지도교수님들께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일본 대학원은 숙제가 별로 없고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하는 정치적인 에너지도 필요 없는 측면에서는 편하지만 또 다른 험한 실력 경쟁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연구인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연구 주제도 명확하지 못한 채 박사과정 수업을 다 들은 저는 다시 현지연구를 하러 한국에 나왔습니다. 저는 옛날 책을 보면서 한국 인류학자들이 현지연구를 한 마을을 10곳 정도 선정해 찾아다니며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에 연구 주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근처에 머무를 곳이 없으면 읍내 찜질방에서 자고 PC방에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녔는데도 마음에 와닿는 연구 주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주제를 정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현지에서 연구해야 박사논문을 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미래가 막힌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네 자취방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항상 입던 스포츠 브라가 빨래한 뒤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입던 일반적인 속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때 속옷을 입으려고 가슴에 손을 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가슴에 딱딱한 뭔가가 만져지는 겁니다. 착각이 아닌지 몇 번이나 만져봤으나 만질 때마다 항상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만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실... 외할머니가 유방암이셨다는 것이 생각이 나 떨렸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크리닉을 검색했습니다.

혼자 여성외과 크리닉을 찾아간 저는 가슴 사진을 찍고 초음파 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른쪽 가슴에 뭔가가 만져진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왼쪽 가슴부터 초음파 검진을 하셔서 “이쪽은 괜찮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는 배려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가슴에 초음파 기계를 대시더니 선생님께서는 “모양이 좀 안 좋네요. 조직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조직검사를 한다고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점점 사형선고가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직을 떼어낸 다음 피가 나오지 않도록 간호사분이 포대로 제 가슴을 둘둘 감았습니다. 방에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셔서 저는 옆 방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창문을 보니 이제 해가 지고 캄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학과 모임이 있었으나 ‘볼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제 또래 정도 되는 젊은 아이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고 자유로운 청춘이 이제 나에게는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텔레비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방암 치료가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백혈병처럼 무균실에 들어가서 항암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다다음 날에 나온다고 하셔서 그날은 그냥 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저보고 학과 모임에 안 오고 뭐했냐고 물었고 저는 조직검사를 받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제 설명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포대로 감아진 가슴은 답답하고 숨쉬기



도 힘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치료 기간보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결과를 기다리면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는 인터넷으로 유방암의 종류와 치료, 유방암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친구가 출근한 뒤 점심을 먹으려고 친구 집을 나섰으나 이 식당도 저 식당도 몸에 안 좋은 음식만 파는 것 같아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한국에서 살고 한국 사회에 익숙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수많은 암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풍경이 어제까지와 전혀 다르게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크리닉에 가려고 집을 나섰더니 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크리닉에 도착하기도 전에 크리닉에서 전화가 온 것은 좋은 소식일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 분이 긴장한 목소리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국에서 수술할 건지 일본에서 수술할 건지 빨리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술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리닉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초기로 보이니까 많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가 일본 병원에 챙겨가야 할 영어 진단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만 28세가 될 생일

의 직전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끊는 일은 바로 되었으나 무엇보다 어려운 일은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성격인데 외동딸이 유방암에 걸렸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자 저는 좀 아파서 일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긴장한 목소리로 “암이 아니지?”라고 했습니다. 눈치 빠른 엄마에게 유방암인데 초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자궁경부암이 아니라 유방암이냐고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도 그랬잖아.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잖아”라고 대답하고 귀국할 일시를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금 엄마는 얼마나 심난할까... 라는 생각으로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귀국하는 날, 먹고 죽자고 평생 그림의 떡이었던 스타벅스 카라멜 마끼아또를 공항에서 사먹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에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의 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때까지 별로 공부해보지 않았던 의료인류학이라는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의료, 환자, 병을 연구 대상으로 문화적 분석을 하는 분야입니다. 다양한 의료 현상을 설명한 책의 곳곳에 제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육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암’이라는 진단명에 충격을 받고 힘들음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사례가 다른 병에도 볼 수 있거나, 암의 그러한 측면을 잘 그려낸 연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러 입원할 때 저는 필드노트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입원하는 동안에 경험할 일들, 보고 듣고 느낄 것들을 의료인류학적으로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부분 절제로 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저는 너무 추워서 덜덜 떨렸습니다. 간호사 분이 담요를 많이 덮어주고 추위는 나아졌는데 점점 수술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자 텔레비전을 보고 견뎠습니다. 머리를 안 써도 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몇 시간 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가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겠으니 참고 있었습니다. 다다음 날부터는 통증도 나아지고 식욕도 돌아왔으나 수술 부위는 볼 수 없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샤워해도 된다는 간호사분의 권유로 샤워실로 가 처음으로 수술 부위를 봤습니다. 가슴 전체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았지만 젖꼭지가 모양도 색깔도 거의 죽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젖꼭지는 살아날 건지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만약에 죽어버리면 성형수술로 만들 수 있다”는 대답이

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면서 그 선생님한테 큰소리를 쳤습니다. “젓꼭지가 죽어버리면 이게 부분절제입니까? 이게 무슨 온존(存) 수술이냐구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암을 다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젓꼭지는 감각을 잃었으나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도 잘 붙어있습니다.

항암을 하지 않은 저는 암치료의 제일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는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방사선 치료실 복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저씨 아줌마들만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젊은 사람이 있다 하면 보호자로 온 경우였습니다. 거기에 왜 이렇게 젊은 내가 환자로 앉아 있어야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경우, ‘왜 나는 이 친구한테 지도를 받고 케어를 받는 약자가 되었는가...’라는 마음에 속상함이 더 늘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온 환자를 보면 ‘나도 누군가가 옆에서 손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또 속상했습니다. 엄마는 날마다 차를 몰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주시고 데리러 와주셨고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었지만, 수술로 입원했을 때 외에는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치료를 받는 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일부러 씩씩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걱정이 많으신 엄마에게 더 걱정시키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젊은 나이에 이려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이불 속에서 울긴 했지만, 옆 방 엄마한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불안감을 더한 것은 딱 그 시기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습니다. 병원 대합실의 텔레비전에서는 폭발할 것 같은 원전이 보도되어 있었고 전문가들은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방사선을 돈 주고 맞아도 괜찮은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사선을 가슴에 쏘이는데 과연 다른 부위에 영향이 없는지, 특히 앞으로 임신하게 될 때 영향은 없는지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기계를 제 배 위에 놓고 치료하는 것을 제안해주셨고 그 기계로 측정해 보니 큰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계속 의료인류학 책을 읽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 열린, 대학생들이 모여서 연구 발표를 하는 합숙에도 참석했습니다. 혹시나 괜찮은 총각이 올라 봐 예쁜 옷을 입고 갈 정도로 에너지는 있었는데 예쁜 옷을 입었더니 목 부분이 크게 열리는 옷이라 방사선 치료의 빨간 화상이 잘 보여 저도 놀라 목도리로 감쌌습니다. 여학생들이 다 같이



목욕하러 가자고 할 때도 저는 “생리 중이니까 방에 있을게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은 있었으나 합숙 중에 저는 연구 주제를 유방암에 관한 문화로 삼아 의료인류학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앞으로 어떻게 현지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계획을 발표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장기간 외국에서 현지 연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엄마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의료인류학 주제는 확실히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확신되며 또한 제 삶의 흔적으로 박사논문 하나 남기고 싶었습니다. 또한 유방암을 경험한 제가 사회를 위해 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다시 밟은 순간은 꿈같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서울 대학교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호르몬 억제제도 처방받으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알게 된 환우 분 집에 있다가 나중에 한국비너스회를 만나게 되고 쉼터에서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쉼터에서 숙식을 했는데 그때는 장기 환우 분들도 많고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하게 지낸 환우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지 연구를 마쳐서 귀국하면 박사논문을 써야 하는데, 많은 대학원생이 머리 아파하고 잘 안 되고 병이 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인터뷰로 수집한 이야기들이 스스로 논문을 구성하듯이 저는 끝까지 편하고 재미있게 박사논문을 썼습니다. '데이터들 스스로가 알아서 박사논문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그리고 하고 싶은 연구 주제를 잘 만나고 현지 연구에서 사람들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성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은 단행본으로 출판하고(일본어), 취직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에 안 걸렸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방암이 저를 먹여 살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유방암이 저를 잡아먹으러 와도 이 절묘한 만남에 대한 신기함과 감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저는 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다른 나라의 암환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젊은 암환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27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었는데 수업 시간이 끝났을 때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자기도 암을 경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10대에 암 치료를 하고 지금은 어린이 암환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고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 모임에서는 좀 어려워 보이는 60대 여자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식사를 할 때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연구 주제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 연구 주제를 잡았는지 물어보시고 제가 설명 드렸더니 그 교수님께서도 유방암을 경험했다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알려주셨습니다. "몇 살 때 했어?" "저는 28살 때입니다" "그래? 나도 28살 때 했는데!!" 교수님과 저는 이 신기한 인연에 허그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참 기쁜 일입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28살 때 이미 결혼한 상태로 유방암에 걸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로 암에 걸려도,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암에 걸려도 각기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상태이지만 수술한 지 8년이 지난 올해에 들어 오랜만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방암에 걸려서 가슴에 수술 흔적이 있는 것, 임신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내면을 중요시해주는 남자가 생각보다 좀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방암을 경험했다고 고백해도 도망가지 않는 남자는 다름없이 속이 깊은 인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속이 깊은 남자가 누군지 잘 알 수 있는 좋은 도구(유방암 경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방암에 걸린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제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자유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노동영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규칙을 정해 그 시간을 지켜 나아가긴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정확히 느낄 수 있을까? 같은 시공간을 보내는 사람마다 제각기 시간의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것들이 대가족 중심에서 부부 중심, 개인 중심, 블록체인화 되어간다. 이제 중앙권력, 집행부는 예전과 달리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이를 따르는 척하지만 사실은 위에서의 통제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서로의 관계를 엮어 함께 모이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왜냐면 일률적인 목표가 아닌 각자의 관계, 이해로 엮어지고 그것이 집단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환자에게만 맞춤형, 개별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개별형, 맞춤형이 되어가고 있다. 비너스회도 지금 이와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20살이 된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인 비너스회도 초창기에는 개인은 없었다. 몇몇 리더십 강한 분들이 전국의 20여 개가 넘는 지부, 조직들을 일사분란하게 만들고 움직였다. 그들의 리더십이 남달랐던 이유도 있겠지만 리더는 개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인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였고 회원들은 그 흐름에 따르고, 때로는 힘겨워하는 환우들을 위해 헌신하며 열혈신자처럼 비너스회에 빠져들었다. 우리 비너스회의 10여 년 전 이야기이다. 지금은 어느 단체도 그때처럼 뜨거운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비너스의 처음은 몇몇 열성분자에 의해서 이끌어졌다. 그리고 그 열정은 도화선에 붙듯이 전국으로 번져 나갔다. 전국에 약 24개 지부가 생겨 본격적인 수련회가 만들어지면서 전국 최대규모로 커졌다. 활동 회원 수만 1,000여 명이 넘는, 아마 세계 최대라 할 수 있는 유방암환우회가 만들어졌다. 미국 시카고, LA 등의 교포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홍콩에도 지부가 자그맣게 생겼었다.

매년 수련회 덕분에 해운대, 광주 화순, 무주, 설악산, 동해, 전국 방방곡곡 좋은 곳은 다 다닌 것 같다.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 감동을 주고받고, 촛불로 밤을 장식하고, 혹은 모닥불로 축제를 만들었다. 그들과 밤늦게까지 대화를 이어가면 아픔도 모두 잊어버리고 서로 오누이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다. 지금 생각해봐도 의사와 환자라는 필연적 관계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특히 그들과 등산을 자주 갔는데 그중에서도 히말라야 트래킹을 잊을 수 없다. 그때의 추억은 KBS <산>이라는 프로그램의 '핑크히말라야'로 영원히 보존되기도 했다. 그에 못지않게 백두산 북파서과 트래킹도 기억난다. 빗속에서 산에 오르느라 위험하고 힘들었지만 모두 완주를 마치고 장백운천에서 산행을 마무리한 것도 아련히 생각한다. 어찌 보면 비너스 회가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낼 그들의 도전에 나도 동참한 것이다.

생각을 좇다 보니 문득 비너스회 10주년 기념행사도 생각이 난다. 짓궂은 회장이 나에게 농담처럼 2030 젊은 회원들과 공연을 하라고 했다. 살사 댄스를 추천한 회원의 말에 그 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민경원 성형외과 교수님과 지금은 모두 교수가 된 전임의들과 3개월 짬을 내어 배웠고, 결국엔 성공리에 10주년 행사를 마쳤다. 만약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도저히 상상도 힘든 사건이지만 당시에는 보는 사람이나 추는 사람 모두 감격했고 후에도 살사를 지속 배워나가자고 약속하였지만 아쉽게도 행사 이후에는 한 번도 다시 출 기회가 생기지 않았고 이제는 스텝도 모두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때의 추억은 아마 모두의 기억 속에 소중한 간직되어 있을 듯하다.

비너스의 최근 10년은 쉼터가 중심이 되었던 것 같다. 합창단원들은 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힘겹게 이끌어 갔지만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회원 수도 줄어들고, 더욱이 내가 보직을 맡느라 수술 수를 줄이게 되어 환우였던 분들마저도 잘 나오지 않게 되어 총회, 수련회, 바자회 등 공식 행사만 이어간 것 같다. 그래도 등산, 요가 임원들은 꾸준히 모임을 잘 이어오고 동호회처럼 아름답게 활동을 이어왔다.

새해가 될 때마다 무한정 쏟아지는 질문들이 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일까? 앞으로는 어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마도 예순 넘어 사는 동안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일 것이다. 그나마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힘든 환우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는 기분일 것이다. 이렇게 오래 살고 공부했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더 많아야 하건만 답을 만들 수 없을 때가 종종 생긴다. 아마도 일상의 의미를 더 깨달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리무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진리는 있다. 우리의 일상은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워야만 한다는 점이다.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이것이 모든 고민과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두가 본인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당사자가 생각하는 큰 가치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물며 요즈음 제일 어려운 사람은 정작 많은 사람이 다 가졌다고 생각한, 부러움 속에 살아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아픔도 마찬가지로이다. 아픔이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병으로 아프지 않을 사람은 없다.

아픔을 겪으면 우리 모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생각은 '왜 하필 내가?' '무엇을 잘못 했다고?' 등의 부정과 자책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많은 아픈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

들을 접하면서 터득한 사실은 인간의 삶이란 매우 공정하다는 점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점이다.

병을 얻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매우 불안하고 먹고 지내는 일조차 무섭기만 하다. 의사가 권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찌 되는 것 아닐까? 지난주에 술을 한 잔 했는데 병이 재발하는 건 아닐까 등등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사는 분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충고한다. 그리 불안에 떨 바에야 차라리 인스턴트 음식, 고기도 마음대로 들고, 어찌다 술도 마시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고 말이다. 우리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답기 위해 살아야 하니 말이다. 이 말인즉 무엇보다 맘이 편해야 한다는 뜻이다. 평소 그렇게 생각을 다듬고 살아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각도에 따라 세상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행복이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우리 비너스 회원 중에는 차라리 유방암에 잘 걸렸다고 자신하는 분도 있다. 그분들은 만약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자식들과 가족에 시달리며 그냥 존재감을 잃고 지냈을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 병에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의 험난한 길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비너스 회원분들 중에는 그런 귀감이 되는 분들이 아주 많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들은 앞에 놓인 고통을 이겨내며 결국 진정한 자유와 인간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찾아낸 분들이다.

식물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아름답고 건강한 꽃을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생가지도 쳐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연약한 식물에 상처가 생겨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꽃과 열매를 만든다. 온실 속의 화초는 온실과 가꾸는 사람이 존재해야 생존할 수 있는 공주님 같은 식물이다. 하지만 혹독한 자연 속에서 자라난 들꽃은 누가 가꿔주지 않아도 당당하게 자연에 맞서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이 가진 유전자를 투박하지만 자연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살아가기에 더욱 빛이 난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닥친 병은, 우리를 온실 속의 꽃이 아닌 우리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자연과도 같다. 그 자연은 당신을 공주님이 아닌 여전사를 만들어 온전히 이 세상에서 굳건히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준다. 공주님은 주변에서 지켜주어야만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어지는 공주는 어찌될까.

우리 비너스 회원들은 공주가 아닌 여전사가 되길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녀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아픈 사람들에게도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니까, 그 아픔을 가진 고독이 얼마나 깊은지 아니 말이다.

그녀들이 가진 자유와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깃들어진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훈장처럼 얻어낸,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게 만든 힘이다.

그러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 안에서, 비너스 안에서 마음을 비우고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을 평범히 받아들이고 묵묵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가장 평범하지만 이 복잡한 세상을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줄 것이다. 이 답은 내가 비너스 Q&A에서도 가장 많이 다는 답글 중의 하나이다.

온실 속의 공주가 아닌, 자신의 삶을 직접 선택해 살아가는 아마조네스의 여전사가 된 20살의 비너스의 성장을 옆에서 함께할 수 있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다. 모쪼록 그녀들 앞에 놓인 길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해안과 따뜻한 마음을 비너스에서 배웠길 바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너스의 온기를 전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들꽃 같고 여전사 같은, 내 오누이 같은 비너스 여러분.

분홍색 비너스

김영미(전 서울대병원 간호과장)



‘같은 질환에 대한 투병 경험을 나누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조(self help)집단 중 유방암 환자의 자조집단에 대한 명칭은?’이라는 문제의 정답은 ‘핑크리본’이다. 아주 쉬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레드리본, 블루리본, 퍼플리본, 골드리본 등 다양한 항목 중에서 고르려니 중간고사를 보는 신입생들은 혼동이 되는 모양이다.

유방암 환자의 자조모임 활동이 교과서에 실리고 시험문제로 나오니 신기하다. 이런 상황에서 핑크리본과 한국비너스회(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 모임, 비너스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학교암병원이 개원하기 전이었다. 시어머님께서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박 충무님이란 분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명한 교수님에게 진료예약을 부탁하셨다. 당시 관련 부

서에 물어본 뒤 의무적으로 예약을 도와드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수술 받으신 분의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 유방암 수술 후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며 아주 즐겁게 지내신다고 했다. 수술 전과는 달리 외모도 멋지게 꾸미고 유방암 환자들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화생활을 즐기신다는 등등.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나 보다 했었다.

그러다 암병원 개원준비단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비너스회의 활동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우선 유방센터 건물 내에 회원실이 배정되는 걸 보고 유방센터에서 비너스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유방센터는 암병원 소속이지만 캠퍼스 내 정반대 편 건물에 위치해 있었는데 암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는 곳마다 자원봉사하는 비너스 회원들이 눈에 띄었다. 당시 박 총무님께서 무척 적극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비너스회 임원이라고 하셨다. 이 글을 쓰면서 비너스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비너스회 회장 인사말이 있는데 내가 알던 '박 총무님'이 작년에 '박춘숙 회장님'이 되셨다고 한다.

비너스회의 활동 중 신입회원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겠지만 내가 겪은 즐거웠던 일만 떠올려 본다. 전국의 지부 회원들이 모여 총회 겸 단체로 여행을 하는데 2015년도엔 강원도로 정했다며 강릉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강릉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던 여고 동창한테 물어봐 알려드렸고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 그날 소개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오죽헌, 경포해변, 홍천의 휴양림 등 강원도 여러 곳에서 즐거워하는 사진들을 홈페이지에서 보니 덩달아 즐거웠다. 그러나 곧이어 건강을 되찾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후기를 읽으니 마음 한구석이 짙해졌다.

2016년엔 송년회에 초대받아 참석했다. 전국 지부에서 회원들이 모였고, 전문 사회자도 초대해 세련되고 정감 있는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고 이분들의 저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전 오랜만에 명동 골목길을 걷다 그 송년회 장소를 지나며 왠지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원내에서 매년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돕기 위해 함춘후원회에 기부를 했다. 바자회 하는 날이면, 암병원 입구에서 빨간색 독일제 보온병, 누비로 만든 옷, 견과류, 북어포,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고르며 직원과 환자들은 함께 축제 분위기를 즐기곤 했다. 그때 산 물건들을 보면 또 추억이 떠오른다.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을 위한 쉼터를 비너스회에서 운영해 왔는데, 10년 동안 전세로 옮겨 다니다 2016년엔 명륜동에 20평형 빌라를 샀다고 했다. 그해 늦여름에 오픈 하우스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 삶은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며 내 집을 마련한 것처럼 좋아하는 회원들과 기쁨을 함께했다. 그런데 작년에 쉼터운영을 중단하고 건물을 팔았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세상의 변화에 따른 사정이 있었겠지만 약간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비너스회 회원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은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인 ‘암병원 음악풍경’에 단골로 출연했다. 하늘하늘한, 어떤 때는 반들반들한 질감의 드레스를 단채로 입고 청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투병의 숭고함이 오버랩되어 매번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이때 나는 객석에 앉아 큰 소리로 ‘앵콜’을 외치는 역할을 자처했다.

비너스회 회원들 간의 끈끈함은 투병이라는, 그것도 같은 질병을 앓아서인지 전우애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결집력이 이루어지는 데는 유방암 환자들의 교주로 불리는 노동영 초대 암병원장님이 그 중심에 계셨다고 본다. 내가 비너스회에 대해 알아갈 때 처음으로 놀란 것은 비너스회 홈페이지의 상담코너였다. 수술 일정보다 더 이른 새벽에 출근해서 환자들의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을 올려 주고 계셨다. 환자가 의료진에게, 그것도 수술한 교수한테 직접 질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상담코너에서 쉽게 질문을 하고 친절히 답을 받으니 20년 전에는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었을까.

2011년 3월에 암병원이 개원했고 그해 10월에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 행사가 청계천 광장에서 열렸다. 암병원의 여러 직원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나는 처음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행사에서도 비너스회 회원들은 중요한 멤버였다. 드레스코드가 분홍색이라고 해서 가방이며 스카프며 분홍색이 있으면 무조건 들고 나갔다. 행사장에 가니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이미 마라톤을 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고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환우회 합창단원들도 있었다. 단상도 분홍색, 부스도 분홍색 온통 분홍 나라였다.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미국의 유명한 화장품회사인 에스티로더의 한국지사장 가족이었다. 부부와 딸이 함께 왔는데 남편은 분홍색 넥타이, 부인은 분홍색 긴 스카프와 분홍색 장지갑을 들고, 딸인 소녀는 엄마와 같은 스카프에 분홍색 치마를 입었는데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다. 이 화장품회사와 핑크리본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는 세월이 지나 내가 직장을 옮긴 후 간호학 개론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알게 되었다.

핑크리본은 유방암 인식의 국제적 상징이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1991년 화장품으로 유명한 미국 에스티로더 그룹에서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캠페인을 벌인 데서 유래하였고, 그룹의 부사장이었던 에블린 로더가 유방암에 걸린 후 유방암 예방과 정복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1992년부터 뉴욕·런던·파리 등 전 세계 100여 개 도시가 동참하면서 국제적인 운동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핑크리본 캠페인이 2000년에 시작되었는데, 핑크리본 캠페인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 추진하는 일이고 한국유방건강재단은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비너스

회도 2000년에 창립되었다. 대한암협회 회장이자 한국비즈니스 회의 발기인이 노동영 교수님이란 사실에 핑크리본과 비너스회의 관계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다.

수술 후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의미 있고 멋있게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비너스 회원들의 태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밀로의 비너스(Venus de Milo)처럼 아름답다. 이런 비너스회도 핑크리본 캠페인도 모두 혈기 넘치는 스무 살이 되었다. 환갑, 백세가 되도록 영원히 이어가길 소망한다.

간호학과 신입생이 수강하는 간호학 개론이라는 교과목의 초반부에 '간호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환경 부문에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핑크리본 캠페인이 소개되어 있다. 교재(『간호학 개론』 현문사)의 일부를 옮겨 보면, '...유방암 환자들의 모임인 핑크리본(pink ribbon)은 유방암을 극복한 환자의 사례를 전파하면서 식이요법과 운동, 약물치료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법, 절망에 빠진 환자나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듣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략... 유방을 절제한 환자들이 패션쇼를 하거나, 기타 특별한 활동을 통해 질병을 극복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다. 몇 년 후 간호사가 될 신입생들에게 비너스회와 핑크리본에 대한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주며 즐겁게 추억할 수 있다니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이번엔 이렇게 문제를 내 봐야겠다. '유방암으로 입원 후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K씨에게 자조그룹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매슬로우(Maslow)의 기본욕구 중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인가?' 정답은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고르면 된다.

나의 인생 선배이자 선생님, 비너스

박세연(서울대학교병원 수간호사)

2011년 3월 25일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이 개원하면서 암정보교육센터도 함께 개소하였다. 암환자 교육에 평소 관심이 많던 나로서는 이 암정보교육센터를 세팅하고 기반을 다져 나가는 일이 마치 오지 탐험과도 같은, 신선하지만 어려운 여정이었다. 당시 정보람 사회복지사님과 고군분투하며 암정보교육센터의 이모저모를 꾸며 나가고 있을 때, 들이서는 하루에 100명 이상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누가 전화만 좀 받아 주

어도, 누가 암병원 길 안내만 좀 해주어도, 누가 환자와 보호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기만 하여도...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갈구하던 그때, 구원투수처럼 짜잔~ 하고 나타난 한국비너스회 회장단분들!

2011년 7월, 의료사회복지팀에서 연결시켜 주시어 기존 원내 안내봉사활동을 하던 회원님들에 이어, 회원님들의 암정보교육센터 안내와 상담 봉사가 개시되었다. '환우전문 자원봉사자'의 타이틀로 그 어디서도 받기 어려운 동병상련의 마음을 환자와 보호자와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감동의 봉사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30대 초반의 어린 나로서는 그 일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조차 잘 알지 못했지만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있고 싶은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상담하면서 다시 떠올리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현재의 환자들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분들이라 생각 되고 지금도 그때 이후로 10년간 지속하고 계시다니 매우 놀랍고도 대단한 열정과 마음이 시다.

암정보교육센터는 ‘암병원 음악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월 1~2회 소규모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2014년 9월 한국비너스회 합창단도 공연에 합류하였다. 드레스를 갖춰 입은 아름다운 자태로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마음을 다해 아름다운 소리를 암병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들려주셨다. 격려와 위로,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울려 퍼지는 합창소리로 청중인 환자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고, 나도 진행하다가 울컥울컥 눈물이 나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하였다.

한국비너스회 회장단과 회원님들은 유난히도 정이 많은 분이시다. 전국 각지로 떠나는 한국비너스회 수련회와 여의도공원을 분홍분홍 물들이는 핑크리본마라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송년회에 우리를 매년 초대하시어 힐링 타임을 주기도 하시고, 늘 웃으며 안아주셔서 우리 어머니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였다.

2017년에는 수간호사로 승진을 하면서 정든 암정보교육센터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중요한 때마다 연락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해 가을에 있었던 나의 결혼식 때에는 봉사자님들 모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어주기도 하셨다. 지금도 암정보교육센터나 대한외래를 지나가다가 봉사활동을 하시는 회원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처음에는 내가 환우분들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한해 두해 함께 지내다 보니 그분들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덕분이다.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누가 곁에 있는지 돌아보면 그네들이 진정한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30대를 돌아보면 암정보교육센터가 크게 한켠에, 그리고 한국비너스회가 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속상하고 힘들 때 어찌면 진짜 엄마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좋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 한국비너스회 회장단과 환우전문자원봉사자님들. 이 분들로 인해 인생을 배우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게 되었으니, 나의 인생 선배이자 선생님이시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함께해주는 고마운 당신들에게

박경희 / 초대회장



기억도 가물가물한 20년 전, 이제는 모두 할머니가 되어버렸을 초창기 아줌마들의 지혜 속에서 태어난 비너스.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 아기 비너스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분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던가. 병원 관계자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비너스의 손을 꼭 잡고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보듬어 주신 노박사님이 계시고, 여러 회원분과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 속에서 값진 20년의 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28년 전 유방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머리카락이 빠질 때의 서글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등등. 긴 시간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과 슬픔도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며 어깨동무하며 함께 걸어온 세월이 20년이네요. 지나온 시간은 좋은 일도 꺾은일도 모두가 하나같이 그림습니다.

세월이 약은 약인가 봅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너스 20년을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어 행복했고 행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듣도 보도 못한 이름 ‘코로나’라는 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을 극복한 것처럼 이 병 또한 극복하면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20년을 함께 하는 비너스 회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병림 / 3대 회장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며칠 전, 올해 2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우가 수술 후 항암 치료 여부는 특수검사 후 안 해도 된다고 했다지만 방사선과 호르몬 치료도 받지 않고, 더군다나 채식만 하겠다는 결심까지 했다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험한 말이 툭 튀어나왔다.

그 환우는 자기는 특수검사에서 재발전이 확률이 3.1%라며 검사결과지까지 내게 보내왔다. 나로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나도 유방암 관련 신교육이라도 받아야 대화가 통하려나 싶다.

나는 2001년에 수술을 받았으니 올해 10월이면 19년 차가 된다. 유방암 환우의 시조새썸 되려나. 그래서 나의 추억 소환은 본격적인 “라떼는 말이야” 버전이다.

다시 돌아가 그 환우에게 치료 후 영양관리 등 병원 교육은 꼭 받으라고 신신당부했다. 남편이 시큰둥 하다는 소리를 듣고 예전에 환우들에게 집 식구들 회람용으로 많이 권했던 책 『내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를 선물하려고 인터넷 서점을 찾아보니 현재는 절판이란다. 새 책 같은 헌책을 구입하여 보니 그야말로 험! 그 책에는 나는 전혀 1도 기억이 없는 다음과 같은 추천사가 있었다.



몸이 아플 때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여간 벅찬 게 아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로 심신이 지칠 때면 행복했던 부부관계도 꼭 한 번쯤 시험을 당한다. 이 책은 유방암 환우 부부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나 소통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법을 친절하게 일러 주는 최고의 심리지침서다.

— 이병림 (유방암 환우모임 비너스회 회장)

예전 그 시절에는 3층 상담실 간호사 선생님 옆에서 비너스회원들이 교대로 나와 신입 환우들에게 선배의 말 한마디로 위로와 안도감을 전해주곤 했다. “힘내세요.” 그 한마디로 긴 세월 인연이 되었던 홍콩 환우의 초대로 한유회 합창단이 홍콩까지 가서 공연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내게 5년 전 위로의 말 한마디가 너무 큰 힘이 되었다고 만난 밥 사주러 오신 분도 있었다. 또 본인은 개인 교습 체질이라며 밥집으로, 카페로 나를 모시고(?) 다녔던 아주 겁 많은 환우도 있었다. 이렇게 신입 환우를 직접 또는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배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던 일이 비너스회 활동 중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기억된다. 그 당시 비너스회의 전화상담을 담당했던 회원은 가끔 해외에서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전화기를 24시간 손에 꼭 쥐고 있노라고 했었다.

“라떼는 말이야~~”

매년 여름이 끝나갈 즈음의 행사였던 ‘비너스회 여름 수련회’,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회원들이 관광버스 6~7대에 나눠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그야말로 팔도를 누비며 다녔다. 어느 해의 수련회에서는 휘닉스파크의 대형 노천풀장에 수백 명의 여성 가운데 유일한 남성은 ‘노동영 교수님’뿐!인 적도 있었다.

노교수님과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한 국내를 넘어 4,000m급 일본의 ‘야쓰카 다케’, 중국의 ‘차마고도’ 결국 오매불망하던 히말라야 5,000m까지 올라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다. 2020년 7월에도 중앙아시아 ‘키르키즈스탄’ 트래킹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해둔 상태다. 이렇게 노교수님과 유방암 환우들의 도전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유명한 뮤지컬을 단체로 관람하기 위하여 ‘신씨뮤지컬’의 대표를 직접 만나 가장 좋은 좌석을 50% 이하로 할인 구매하여 관람하기도 하였고, 한번은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에도 단체로 가보자는 회원들의 성화에 100명의 티켓을 확보했다. 그런데 정작 그날 모인 회원은 50여 명. 원래 단체는 안 되는데 특별한 경우라 결재는 무조건 100명분을 해야 한다는 조건

이었다. 워낙 인기 높았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나머지 50명분을 어쩌나 고민하다가 내가 결제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연 당일에 손수건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선물과 감사의 편지를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담당 과장에게 전했다. ‘음악회를 통하여 우리 유방암 환우들은 지친 몸과 마음의 큰 위로를 얻었노라’ 그런 내용을 진심을 담아 적었던 것 같다. 진심이 통한 것인지 그날 저녁에 아주 특별히 50명분의 티켓을 취소해주겠다는 전화가 왔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음악회 사건 또한 몽땅 다 노교수님께서 무한 열정으로 뺨을 써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대학로의 칼국수 집에서 팀장 회의가 열렸는데 지역 소모임 팀장과 노래교실, 요가, 등산팀의 팀장까지 20여 명이 넘게 모일 때도 있었다. 이런저런 사안에 대한 난상 토론으로 격앙된 큰 소리에 한번은 아래층에서 주인이 올라와서 너무 시끄럽다는 손님들의 항의가 있다고 나가든지 조용히 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러저러한 사항으로 비너스 게시판이 시끌시끌했던 적도 있었다. 당시에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너도나도 비너스에 대한 열정이 끊어 넘치다 보니 지금의 여당 야당처럼 그랬지 않았나 싶다. 그때를 회상하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그때 그 열정 팀장님들 20주년 행사에 다들 오시려나? 보고 싶은 얼굴들이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며칠 전 그 환우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 떠도는 영터리 소문 듣지 말고 비너스회 게시판 노교수님 Q&A에 들어가서 문의하라고 권하는 말끝에 나도 오랜만에 들어가 보았다. 48428번의 글인데 술을 가끔, 조금씩 기분전환으로 마셔도 괜찮으냐는 질의에 노교수님의 긍정적이고 위트 넘치는 답변, 예전 그대로이다.

잘 지내고 계시네요.

어쩌다 술도 한잔하고, 즐겁게 살려고 돈도 벌고, 친구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안 안 걸리고, 코로나에 감염 안 되는 것처럼 되었어요.

지금은 코로나만 안 걸리면,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되어버렸지요. 우습지요?

귀하는 너무나 잘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어요. 그런데 그것 마시고 어쩌나, 암 걸리면 등등.

걱정할 것이면 끊어 버리시고...

— 비너스회 노동영 박사 Q&A 중에서

'BC'를 요즘엔 'Before 코로나'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나에게서는 Breast Cancer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구분되어 진다. 매주 토요일마다 유방암 환우들과 모여서 합창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환우들과 전국의 휴양림을 찾아다닌 지 어언 10년이 지났다. 어느 휴양림 숲속의 집에서 이른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과일과 원두커피가 있는 식탁을 유방암 환우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순간은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소중한 순간이다.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디지털 세상이지만 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하고 진한 인간미가 넘치는, 조금은 뒤쳐진 아날로그의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다.

아픔을 함께하고 보듬은 우리의 비너스

이현숙 / 5대 회장

너무나 벅찬 가슴을 뛰면서 오랜만에 축하 인사드립니다.

한순간 건강으로 무너진 삶이 비너스로 인해 희망을 얻었고, 비너스로 즐거웠고, 그리고 행복했고 이러한 20년 세월이 다시 한번 새삼 감동스럽습니다.

매년 2월이면 총회로 시작하여 전국을 누비며 핑크마라톤을 하였고, 매년 큰행사로서 1박 2일 수련회, 전국 방방곡곡 공기 좋은 청정지역으로 힐링을 하였고, 10월이면 핑크리본 행사로 눈코 뜰 새 없이 유방암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이 모든 활동이 전국 비너스회 회원 여

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곁에 노동영 교수님이 계셨고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이 계셨기에 너무나 감사함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초대 고문님을 비롯한 전국 비너스 회원님들!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19를 극복하면서 20주년 행사를 맞이하는 우리 비너스회 회원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다시 한 번 파이팅입니다.



한여름 밤의 꿈

유경희 / 6대 회장



비너스와 함께하면서 보낸 시간이 내게는 한여름 밤의 꿈인 듯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비너스 안에서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찬란한 꿈을 꿀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12년 전, 나와 비너스와의 첫 만남은 충격과 슬픔을 가슴에 안은 채였지만 노동영 교수님과 선배 비너스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난 꿈만 같은, 평소 꿈꾸던 바다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다 같고 어머니 품 같은 비너스안에서 숨 쉬고 뛰어다니고 웃자, 비로소 거짓말처럼 건강해지고 강해지며 더불어 내 가슴에도 새로운 분홍빛 희망을 품을 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비너스 새내기들, 또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처럼 비너스 안에서 자유롭게 숨 쉬며, 당신이 그동안 꿈꿔왔던 총천연색의 찬란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너스에서 꿈 한여름밤의 꿈처럼 말이지요.

앞으로도 영원할 비너스, 그 찬란함

박춘숙 / 현 회장



2020년, 비너스회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강산도 2번이나 변하였을 그 시간 동안 비너스회는 사랑과 희망을 나누며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해 왔습니다.

저와 비너스회의 인연은 제가 병을 진단받고 너무 막막했을 때 비너스회를 통해 크나큰 위로를 받고 한줄기 빛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18년 동안 비너스회의 모든 행사와 일에 참여하는 유일한 회원이 되어 감사함과 희망을 나누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비너스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0년 6월 노동영 교수님과 회원 60여 명과 함께한 백두산 트레킹입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웃으며 백두산 천지에 올랐을 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우리를 맞아주던 그 순간, ‘아, 우리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아픔을 이겨내

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장관도 볼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잘 치료해주셔서 하늘도 감동하여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에 쭉스러워하시던 노동영 교수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비너스회와 우리 환우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20주년이라는 긴 세월을 비너스를 위해 애써주시는 노동영 교수님, 한원식 센터장님, 고문님과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임원님 그리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비너스회의 20주년을 깊이, 깊이, 축하합니다.



좌부터 이병림, 이준희, 박경희, 유경희, 이현숙 고문님들

비너스회 20년, 당신들이 있어 우리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피해
비너스라는 따뜻한 온실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을 키우고
지친 몸과 마음을 동료들과 함께 치유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비로소 비너스라는 따뜻한 동지에서 잊어버린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차가운 마음과 손을 위해 자신의 따뜻한 마음과 손을 기꺼이 내어준 당신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비너스 산하단체 회원가입 안내

회원은 비너스회의 회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각종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너스회에서 상호 지원활동을 통한 나눔과 위로를 경험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해가길 바랍니다.

- 가입비 30,000원 • 연회비 40,000원 (지방팀 년회비 20,000원)
- 입금계좌 국민은행 : 274301-04-083900
*입금하신 후 부회장, 총무나 회계에게 연락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 가입안내 총무 / 정지영(010-2030-9174), 회계 / 김순호(010-6307-2688)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
한국비너스회 20년,
그 시간의 역사

발행일/ 2020년 06월 29일

발행/ 한국비너스회

편집위원/ 김순호 박춘숙 유경희

감수/ 노동영

기획 및 책임편집/ 정은아

발행처/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센터 상담실 한국비너스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전화/ 02-2072-0706

홈페이지/ www.koreavenus.com

디자인 및 제작/ (주)새롭 02-2278-4211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 한국비너스회에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